

통(通)성경으로 살펴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연구:

창원새순교회 사역을 중심으로(2011-2023년)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이규섭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Gyuseob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MINISTRY OF JESUS IN THE FOUR GOSPELS THROUGH
THE TONG BIBLE:
FOCUSING ON THE MINISTRY OF CHANGWON SAESUN CHURCH (2011–2023)**

Gyuseob Lee

Changwon, Korea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as presented in the Four Gospels from a Tong Bible (canonical and integrative) perspective. Rather than approaching each Gospel as an isolated text,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His ministry within the redemptive-historical flow of the entire biblical canon, from Genesis to Revelation.

Each Gospel portrays His ministry with a distinct theological emphasis: Matthew presents Jesus as the King who fulfills Old Testament prophecy; Mark emphasizes Jesus as the Suffering Servant; Luke highlights Jesus as the Son of Man who brings salvation to all humanity; and John proclaims Jesus as the Son of God who reveals divine glory.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perspectives are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forming a unified testimony to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when read through a Tong Bible framework.

Methodologically, this research employs a literature review of Tong Bible theology, a comparative and integrative analysis of the four Gospels, and a thematic examination of His major ministries, including teaching, healing, suffering, death, resurrec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disciple community.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nalyzes twelve years (2011–2023) of pastoral ministry at Changwon Saesun Church to demonstrate how a Tong Bible approach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a contemporary church context, particularly in next-generation educ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a Tong Bible approach to the four Gospels provides a more holistic understanding of His ministry and offers a practical alternative to fragmentary, verse-by-verse biblical instruction. By emphasizing the unified narrative of Scripture and the centrality of His ministr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eaching at least the four Gospels integratively as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Christian faith formation, especially among children, youth, and young adults.

.

국문초록

통(通)성경으로 살펴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연구:

창원새순교회 사역을 중심으로(2011-2023년)

이규섭

창원, 한국

본 논문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通)성경, 즉 정경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각 복음서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헌으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의 사역을 고유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묘사한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왕으로 제시하며,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한다.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인자로서의 예수를 부각시키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를 선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통성경적 해석 틀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형성함을 논증한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통성경 신학에 대한 문헌 연구, 사복음서의 비교·통합적 분석, 그리고 예수의 주요 사역-가르침, 치유, 고난, 죽음, 부활, 제자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활용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창원 새순교회에서 이루어진 12년간의 목회 사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성경적 접근이 현대 교회 현장, 특히 다음 세대 교육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복음서를 통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함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또한 성경을 단편적이고 절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경 전체의 통일된 이야기 구조와 예수 사역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위해 사복음서를 최소한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 틀로서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목차

감사의 글	vii
부록 목차	

vii

I. 서론	1
A.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C. 연구의 범위와 한계	4
II. 통성경(通聖經)의 총괄	6
A. 통(通)성경의 개념과 의의	6
1. 시간·공간·인간의 통합적 이해	6
2. 개인·가정·나라의 통전적 구속사	8
3. 제사장 나라·제국·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9
B. 성경통독의 역사와 발전	10
1. 한국교회 내 성경통독 운동의 전개	10
2. 성경통독의 신학적 의의	13
C. 통(通)신학의 형성과 방법론	15
1. 통(通)의 개념과 해석학적 특성	15
2. 공시적·통시적 해석의 통합	20
3. 통(通)성경과 신학적 해석의 관계	28

vii

III.	통(通)성경 관점으로 본 사복음서	31
	A. 사복음서의 개관과 신학적 구조	31
	1. 마태복음-왕으로 오신 예수	31
	2. 마가복음-종으로 오신 예수	33
	3. 누가복음-인자로 오신 예수	38
	4. 요한복음-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41
	B. 사복음서의 영성과 신학	48
	1. 마태복음의 영성-하나님 나라의 윤리	49
	2. 마가복음의 영성-섬김과 헌신의 영성	51
	3. 누가복음의 영성-자비와 긍휼의 영성	53
	4. 요한복음의 영성-사랑과 연합의 영성	56
IV.	통(通)성경 관점으로 본 예수님의 사역	60
	A.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구속사적 위치	60
	B. 예수님의 주요 사역	62
	1.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62
	2. 예수님 사역의 자기비하와 헌신: 긍휼의사역을 중심으로	63
	3.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64
V.	통(通)성경을 사역에 적용한 창원새순교회	71
	A. 창원새순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71

1.	창원새순교회의 역사와 비전.....	71
2.	창원새순교회의 목적, 사명, 가치	73
B.	창원새순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75
1.	질적 특징과 생명체적 원리	75
2.	순모임의 다섯가지 목표	77
3.	창원새순교회 교육훈련 목표와 과정	78
C.	창원새순교회 통성경학교 현황	79
1.	강의 내용	79
2.	참석 인원 현황	81
3.	목회현장에 통성경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	81
D.	예수님 사역의 실제적 구현	82
1.	용서의 사역-공동체 내 화해와 관계회복	83
2.	치유의 사역-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향한 섬김	84
3.	제자훈련 사역-성령 안에서의 양육과 리더십	87
4.	리더십 사역-종과 제자양육	90
VI.	현대 교회 속에서 실현되는 예수님의 사역	94
A.	교회 공동체의 섬김 실천	94
B.	사회 정의와 복음의 통합	95
C.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 구원으로서의 확장	95
D.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방식	96
VII.	결론	98

A. 연구요약	98
B. 신학기여(통성경과 사복음서)	99
C. 목회와 교육적 기여	101
D. 한계와 후속 연구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6

부록 목차

<부록1>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106
<부록2> 예수님 치유사역의 대표적인 실례들	108
<부록3> 청년대학부 계획안(2021)	110
<부록4> 7기 입학시나리오와 오리엔테이션	112
<부록5> 7기 입학생 명단	114
<부록6> 7기 통성경학교 출석표	116
<부록7> 7기 센터별 수업 진행 보고서	117
<부록8> 7기 진행 시나리오	119
<부록9> 통성경학교 2기 단체 사진	128
<부록10> 초등2부 겨울성경 캠프 단체 사진	128

감사의 글

2011년에 창원새순교회 부임하여 박영호 목사님을 통해 통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2012년 조병호 박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통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 렉처러 9기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창원새순교회에서 12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훈련받고 배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당연히 통성경이다. 통성경학교를 하면서 제7기까지 성도들이 154명이 수료했고 성경 강사로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통성경은 나의 목회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초등부 5년, 중고등부 3년, 청년부 4년을 사역하면서 통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박영호목사님과 조병호박사님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김영래박사님과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고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래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정진욱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묵묵히 사랑과 내조를 아끼지 않은 나의 소중한 아내 이은화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설교와 통성경을 듣고 자란 예수,

예랑, 예나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신 창원새순교회 박영호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저의 부모이시고 항상 기도로 돕는 이충길 은퇴장로님과
노명점 은퇴권사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는 이 말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성도들에게 통성경을 가르치며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이규섭

I. 서론

A.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구함에 있어 사복음서를 통(通)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작업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복음서는 동일한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도 각기 다른 신학적 관점과 서술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하며,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상을 부각한다. 또한 누가복음은 인자(人子)로서의 보편적 구원자 이미지를 제시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신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각 복음서는 다른 신학적 초점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단편적으로 접근할 경우 예수님 사역의 총체적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통합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작업은 예수님 사역의 신학적 균형과 전체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경 전체가 전개하는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신학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통(通)성경적 해석은 성경을 단편적 이야기들의 집합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통일된 역사로 이해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과 약속을 담고 있으며, 복음서는 약속의

성취로서 나타난 메시아의 성육신과 공생애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신약의 나머지 성경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교회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공생애 기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피는 중심 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 놓는 작업은 신학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이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 교육 현장에서 성경을 개별 본문이나 교훈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하지만 성경의 구조적 통일성과 역사적 전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단편적 성경 이해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균형있게 따르는 제자도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사복음서가 사건의 배열과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저자들의 신학적 목적과 공동체적 상황에 기인하며, 이러한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치유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 제자훈련, 십자가의 길 등 예수님의 사역의 다양한 사역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오늘날 신앙과 실천 속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물론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연구 범위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사복음서에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 구조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사복음서의 서사적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신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야기

구조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복음서를 통(通)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사적 통일성 속에서 이해하고, 그 신학적 의미와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통(通)성경 관점은 사복음서 이해에 어떠한 신학적 통합을 제공하는가? 둘째,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어떤 실제적 효과를 가지는가? 이 두 질문을 던지면서 논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B.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논문은 성경의 부분이 아닌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통(通)성경적 관점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통(通)성경으로 살펴본 사복음서의 통합적 이해가 현대교회의 성경교육과 제자도 형성, 특히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사복음서를 연구한 선행 논문과 주석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사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과 신학적 강조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단순한 문헌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사역의 통합적 의미를 나타낸 후 현대 교회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이라는 목회적 과제를 중심에 두고, 신앙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사복음서의 동일 사건과 주제 서술을 비교하여 각 권의 신학적 강조점을 분석하고 차이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통합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사복음서와 통(通)성경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학문적 배경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通)성경학교에서 사용된 자료를 사진과 도표를 시각화하였다.

연구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조병호 박사의 이론을 중심으로 통(通)성경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복음서를 공시적·통시적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별로 통합하였다. 넷째, 창원새순교회의 12년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신학적·목회적·교육적 기여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C.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기반으로 하되, 중심 분석 텍스트는 사복음서로 제한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구약성경, 신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언급도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연구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통(通)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했다. 따라서 단순한 시간 순서의 기술이나 개별사건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각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구속사적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한다. 예수님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관한

논문은 많지 않다.

특히 본 논문은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제자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通)성경적으로 추적하며, 이 사역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II. 통성경(通聖經)의 총괄

A. 통(通)성경의 개념과 의의¹

1. 시간·공간·인간의 통합적 이해

성경에는 대략 이천여 년의 시간과 천오백 곳의 공간, 그리고 오천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시간 이해는 단순한 연대기적 흐름을 넘어 창조에서 역사 완성의 시점까지 전 우주적인 차원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시간 구조는 시작과 종결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통합되며, 성경은 그분을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의미를 부여하시는 궁극적 기준으로 증언한다. 따라서 성경적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분리된 단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통일된 방향성을 지닌다. 또한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절기와 제도를 통해 구체화한다.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년과 희년은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지렛 안에 두는 장치로 기능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3대 명절은 이스라엘 역사적 경험과 구원의 기억을 재현함으로써, 신앙공동체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반복적으로 상기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절기 체계는 단순한

¹ 통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通) 성경은 통신학의 기반이다.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는 신학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시간’ 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약 1,500여 곳에 이른다.

성경에서의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성경적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구체화된 역사적 현장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사명을 규정하는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등 참으로 많다. 성경은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한 사례들을 함께 증언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정탐꾼 10명을 비롯해 여로보암, 예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 등이 있다. 또한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 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크게 나뉜다. 성경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과 같은 절기는 단순히 시간적 표시가 아니라, 그 절기가 집행되는 특 특정 장소와 이를 경험하는 인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통성경을 연구할 때는 시간, 공간, 인간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특정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참여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통(通)성경적

관점이다.²

2. 개인 · 가정 · 나라의 통전적 구속사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뽐으로 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비교적 안정된 가정적 결속과 내적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그 가정이,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단순한 한 가정의 신앙적 결단이나 개인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 당시 히브리 공동체가 처해 있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애굽과 같은 주권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곧 민족적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정치적 ·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맡겨 나일 강에 띄워 보내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 가정 ·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 신학』 (서울: 통독원, 2016), 18-19.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通)성경이다.³

3. 제사장 나라·제국·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1조는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여호와니라” (출 20:2)이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앗수르 제국, <예레미야>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³ Ibid., 20-21.

바벨론 제국,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언과 역사서는 당시 제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관계, 그리고 구속사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수전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각각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으므로, 신약성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제국의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通)성경이다.⁴

B. 성경통독의 역사와 발전

1. 한국교회내 성경통독 운동의 전개

a. 한국교회의 성경읽기 역사

한국 개신교는 설립초기부터 성경 읽기를 핵심신앙의 실천으로 삼았다. 서양

⁴ Ibid., 22-23.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접한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결단을 내리고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사례가 있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발단 역시, 성경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인 선교사와 신자들의 공동체적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부흥회의 주요 특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경 읽기가 강조될수록, 그 방법이 균형을 잃을 경우 문제점도 나타났다. 특정 본문이나 부분적 성경 읽기는 편향된 해석으로 이어져, 종종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경의 의미가 임의로 조정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와 기독교적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다.⁵

b. 성경통독의 등장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개별 본문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이해하며 연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럴테면 『삼국지』⁶나 『태백산맥』⁷ 같은 대하소설을 읽을 때”, 대하소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으며, 성경의 각 권이 서로 연결되어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⁵ Ibid., 34.

⁶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중국 명대(明代) 초기, 나관중(羅貫中)이 지은 장편소설. 후한(後漢)말에서 삼국시대까지의 다양한 정치군사적 분쟁을 그린 책으로 등장 인물이 많고 구성이 웅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허구적인 내용을 덧붙여 흥미 본위로 쓴 중국 연의소설(演義小說)의 최 걸작으로 꼽힌다.

⁷ 『태백산맥』. 소설가 조정래가 지은 대하소설. 여수반란사건을 축으로 한과 이데올로기의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상놈 출신의 주인공 염상진과 무당 소화, 하대치, 김범우 등 등장 인물들의 사랑과 갈등이 어우러진 80년대 분단문학의 대표작으로서, 전체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독(通讀)’은 동양 학문에서 텍스트 전체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흐름을 이해하고 직관적 통찰에 이르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성경에 적용하면 66권 전체를 단편이 아닌 하나의 연속적 흐름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의 전체적 구조와 메시지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형성된다. 성경의 개별 구절이나 장, 각 권이 제공하는 메시지와 달리, 성경 전체가 전달하는 구속사적 의미는 분석 접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단편적·선택적 읽기는 특정 본문에 편중된 이해를 초래하고, 신앙의 균형을 해치며 하나님의 의도와 전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성경 통독은 신앙의 깊이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성경 통독은 66권 전체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읽는 방법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성경은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어,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읽으면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이 분절되어 나타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신적 계획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경 통독은 역사적 전개 순서에 따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와 섭리의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부분적이고도 편향적인 성경읽기의 과오를 범해 왔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편향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한국교회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한국교회가 서양 신학의 분석적이고 분절적인 접근 방식을 거의 비판없이 수용해 온

⁸ 조병호, 『통이다 뚝뚝 통』 (서울: 통독원, 2009), 163-164.

점 역시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은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서구 신학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의 편향적 읽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유사하게 성경 이해의 한계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서구 교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서구 교회와 전통적 신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경 이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한국 교회에서는 실천적 성경 읽기와 통독을 통해 일정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통독이다.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가려는 노력들이 시작되었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경통독은 경전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말씀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몇몇 사람들이 성경 통독 운동을 주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말씀 자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통독을 알게 되고, 이 운동에 하나 둘 동참하게 된 것이다.⁹

2. 성경통독의 신학적 의의¹⁰

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 신학』, 36-37.

¹⁰ “통(通)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통의 구체적 방법론을 성경 읽기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의 방법론을 ‘성경’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맞도록 적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형태로 변화·발전시킨 것을 ‘성경통독’이라 한다(조병호, 『통이다 랫츠 통』, 169).”

a.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성경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과 인물이 상호 연관되며 전개되는 구속사적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사적·신학적 맥락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경 통독이다.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읽는 것 보다 부분으로 읽는 것과 전체를 읽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b.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

성경 통독이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인식하고, 66권을 역사적 전개 순서에 따라 읽는 방법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성경은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각각 따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읽으면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이 분절되어 나타나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경영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를 관찰하면 이러한 필요성이 명확해진다. 느헤미야는 현재 성경 편제상 역사서 말미, 즉 역대기와 에스라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로 에스더,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가 배열된 후 예레미야가 나온다. 그러나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읽으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사건의 인과 관계와 구속사적 흐름이 훨씬 명확해지며, 독자는 성경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고 흐름의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잘 알 수 있다.

c.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통(通)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성경의 깊이를 더 하게 된다. 성경속의 하나님의 마음은 좋고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아파하는 한탄하는 마음도 포함한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어, 구절, 문장, 문단 등의 성경 각 권을 읽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66권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통독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체험적으로 파악하는 전인적(全人的) 경험을 지향한다.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읽어 나갈 때, 독자는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구속 계획을 실현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앙적 순종과 영적 성숙으로 이어진다.

C. 통신학의 형성과 방법론

1. 통의 개념과 해석학적 특성

a. 통이란?

통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히 비치다, 통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며, 통이라는 글자는 주로 ‘통달’, ‘소통’, ‘화통’, ‘정보통’ 등과 같이 다른 한자어와 함께 단어를 이루어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서로 뜻이 맞거나 생각이 같을 때를 표현하는 말로 ‘통하다’로 사용되었다. 한 예로, 좋아하는 계절,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같을 때에 ‘통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비슷하거나 잘 어울리지 않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 쉽게 동의해 주지 않거나 혹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두고는 뭔가 ‘통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조병호 박사가 말하는 통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서,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인식의 방법이다. 즉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칭하기 위함이다. 조병호 박사는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b. 통으로 보다

‘통으로 보다’라는 단어는 통의 방식으로 대상을 본다는 뜻으로, 여기서 ‘보다’는 말은 ‘생각하다’, ‘인식하다’ 등의 말과 통용될 수 있다. ‘통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다’를 ‘인식하다’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어떤 사람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가 적절한 경우 “자네가 사람 참 잘 봤네.”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 때의 ‘보다’는 눈으로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깨끗이 알아보다’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과 같다. 결국 어떠한 대상을 ‘통으로

본다’ 는 말은 그 대상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두루 생각하여 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즉, ‘통으로 보다’ 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경로와 관점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인식을 위한 방법을 표현한 말이다. 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단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인식의 편협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루 균형있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통으로 보다’ 라는 말의 뜻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으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호 연관성과 맥락 속에서 여러 경로와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 대상이 지닌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것이다. 이때 ‘통으로 보다’ 라는 개념에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일 수 있으며 혹은 단수이거나 복수가 될 수도 있다.

c. 통의 요건

통의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대상을 인식하는 다양한 경로와 관점들 간에 상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 라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A를 눈으로 보다’ , ‘A를 귀로 듣다’ , ‘A의 맛을 보다’ 등의 방식을 두루 섭렵하는 통의 방식이다. 그러나 ‘A를 눈으로 보다’ 와 ‘A의 색깔’ 이라고 했을 때에는 A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족하고 있지만 서로 상보적인 관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결국 같거나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며 ‘A’가 동물이라고 할 경우에, ‘A가 기쁠 때의 행동유형’과 ‘A의 친척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은 동물’은 ‘A’에 대한 정보이므로 상보적 일 수는 있으나 유기성이 결여된 것으로, ‘통’이라고 할 수 없다. ‘A가 기쁠 때의 행동유형’, ‘A가 슬플때의 행동 유형’, ‘A가 화날때의 행동 유형’ 등과 같이 ‘A’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관점들 사이에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계열성이다. 예를 들어 ‘A’가 사람일 경우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의 관점은 ‘통’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하위 계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는 ‘통’이라고 부를 수 없다. 개인적 특성의 하위 열에 해당하는 ‘내면적 특성’과 ‘외면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둘을 통으로 볼 수 있으나 외면적 특성의 하위 계열에 해당하는 ‘키’와 ‘외면적 특성’과는 통으로 볼 수 없다. 즉 통이란 같은 위계를 지닌 항목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d. 통신학

통신학이란 ‘통’과 ‘통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 즉,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 다양한 관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을 조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통신학인 것이다. 이때 종합적인 입장에서 수렴할 수 있는 관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보성,

유기성, 계열성이라는 통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경을 분석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동시에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통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구의 경전읽기 방식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동양적인 성경읽기 방식은 전체적인 성경읽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함께 아우러져야 할 것이다.¹¹

또한 통의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통신학의 방법론으로서의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 읽기와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 읽기의 통합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공시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볼 때, 비슷한 무렵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 스바냐, 하박국 등을 함께 보는 것이 공시이다. 예레미야 이전에 예루살렘성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과 예레미야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것이 통시이다. 예레미야를 통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 모두를 상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병호 박사는 부분적 성경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와같은 두 가지 방법, 즉 공시적 성경 읽기와 통시적 성경 읽기가 통으로 묶여야 함을 주장한다.

성경해석에 있어 통신학적 접근은 서로 다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을 의미하며,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와 마음 중심의 성경 읽기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서 성경의 전체적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서구 교회는 경전 중심의 접근을 통해 성경을 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 왔으나, 동양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성경 읽기는 인간의 마음과

¹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 신학』, 72.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는 측면을 제공한다. 통신학은 이러한 동서양의 접근 방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e. 성경통독과 통신학

성경통독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고, 성경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읽음으로써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통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수렴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통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신학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들을 상보적·유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성경통독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이다. 성경을 부분만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관점을 얻기 힘들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에는 각 부분마다 적합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시적·통시적 해석의 통합

a. 하나의 대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

통이 대상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보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통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상이나 존재 혹은 입장이나 상황 등 하나의 특정 인식 대상은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따라 바라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물리적인 예로 생각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동일하게 보이는 개체는 빛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 아래 ‘관념과 일치하는 구(球)’ 밖에 없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의 방법으로 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그가 아내와 조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 아끼는 자녀 이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웠다는 것, 그의 종들과 목숨을 나눌 정도로 공동체성을 이루었다는 것 등 그 인생 전반에 걸친 관계들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강조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살펴보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의 균형있게 통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신앙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것만큼이나, 인생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특히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공시적(공시적: Synchronic) 접근과 통시적(통시적: Diachronic)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가로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시적 각도와 시간의 세로축으로 표현될 수 있는 통시적 각도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시적

각도에서만 성경읽기를 고집하면, 통시적 흐름을 따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어렵고, 통시적 각도에서만 성경을 읽으면, 공시적 넓이를 따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은 통시적 관점에서 읽을 때, 그 이해가 빠르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에 이르는 2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세로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로마서 16장은 공시적 관점에서 읽을 때, 그 의미가 정확해진다. 로마서 16장에는 시간의 가로축에서 여러 곳곳의 공간에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다. 이 이름들은 바울의 인간관계, 다시 말해 바울의 당대 인적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성경을 볼 때 공시와 통시, 이 두 가지 관점을 다양하고도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성경의 기록이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b.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 특성을 찾는 것

다수의 대상을 통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토대로 산출된 결과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반추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는 앞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통해 접근한다고 하는 것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를 들어, ‘가나안’이라는 공간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삶을 통해 다각적으로 조망한다면 가나안의 신학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세 인물의 생애를 공통된 공간적 배경 속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가나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은 하나의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특징으로서의 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진 현상이나 존재나 사고들을 혼재가 아닌 공존으로 정리하게 한다. 즉 ‘통’의 인식 방법을 통해서 개체가 지니는 부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빌레몬서의 시대배경인 로마 제국은 귀족과 평민에게는 시민권과 보호를 보장하지만, 노예에 있어서는 일부 해방 노예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결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명제에 누구든 쉽게 동의하지만, 당시에는 노예제도의 존속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재고(再考)의 여지를 두지 않았던 것이다.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노예 몇 명은 반드시 두고 살았고, 전쟁을 통해 로마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노예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갔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나이 또래의 어린 주인과 한평생을 같이할 운명이 지워져, 어려서부터 주인과 함께 학교에도 가고, 오후에는 체력단련을 위해 체육관에도 함께 갔다. 이것은 노예들을 교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섬기게 될 주인을 더 잘 보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이었다.

오네시모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노예로,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집을 나와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길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들고가게 하는데, 바울은 그 편지에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부탁을 담았다(빌레몬서 1:16). 이 부탁은 계급이 엄격하게 유지되던 당시로는 실로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 쓴 편지인 빌레몬서를 읽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음을 물론이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들이 처한 모든 충돌 가능 조건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할 수 있게 했다. 빌레몬서를 통으로 보면, 이는 세 사람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인 기록이다.

빌레몬서란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모든 조건과 모든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 사건의 기록이자 그 증거인 것이다. 이것이 강력한 사회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 ‘기적의 편지’인 빌레몬서를 통으로 보는 방법이다.

c.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주목받는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연결성’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생각은 중심성의 해체로 인해 개체가 다른 개체와의 상보성을 찾지 못하고 피상적인 조각에 그치고 마는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통(通)이란 ‘부분’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다른 개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개체가 관념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통의 사고방식은 타자와 연결된 존재의 가치평가를 위한, 혹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요소이다.

전체와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현상의 두 가지 얼굴이므로, 부분에만 초점을 기울이다 보면, 상존하기 마련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극간에서 발전적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반대로 전체만 강조하다 보면, 개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통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즉, 개별 현상을 분석할 때는 각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동시에, 모든 요소를 통합된 전체 속에서 상호 연관성과 유기적 결합을 고려하여 이해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d.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

어떤 대상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 자체의 속성에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대상을 보는 관점이나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꽃의 향기보다 더욱 강한 향기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는 꽃의 향기 그 자체가 변화하거나 그 특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꽃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거나 다른 향기와 섞여 달리 느껴질 수가 있다. 동일한 개체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는 개체가 달리 인식되는 것이다.

꽃의 향기를 Text로, 꽃의 향기보다 더 진한 향이 꽃의 향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Context라고 규정한다면, Text는 자율적인 의미 체계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면서도, 그것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방식은 이를 둘러싼 Context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같은 Text가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Text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Text와 Context를 각기 다른 현상으로 취급하게 되면, 현실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Text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보다 Text가 해석될 때의 상황, 즉 Context가 Text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Text와 Context를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균형 잡힌 사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통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은 본문(Text) 자체의 의미 구조와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Context)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그 본문이 ‘그때 거기’에서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며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Context를 고려하지 않는 채 기록을 해석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좁은 시각이나 편견을 가지게 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과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은 모두 성경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지만 초점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경신학은 성경의 역사적 전개와 주제적 발전을 시간적, 문헌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를 개별책 신학적 강조점 안에서 이해하는데 주력한다. 정경비평은 성경을 최종 정경으로서 분석하며, 문헌 간 상호연관성과 편집 의도를 통해 정경 내 일관된 신학적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성경신학의 타당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닌 논쟁들과 궤적들—무엇이

성경신학이며, 무엇이 성경신학이 아닌가—을, 또한 무수한 성경신학적 접근 방식들을 깊이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간략히 말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신학을 실행하는 방식은 성경 역사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닌 다양한 시대 별 주제들이나 궤적들을 추적하는 방식이다.¹²

이에 비해 통(通)성경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구속사적 이야기로 읽고, 사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즉, 통(通)성경은 역사적 전개 분석과 정경 구조 분석을 결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 전체 구속사 속 핵심 사건으로 재조명하고, 개별 복음서가 상호보완적 증언으로 기능하도록 이해하게 한다.

e.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

명확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서로 배타성을 띄고 있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의 양극단을 전체적 입장에서 아울러내는 것이 바로 통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대체로 서양의 논리가 ‘either-or’ 로 모아지고, 동양의 논리는 ‘both-and’ 를 향한다고 보면, 극과 극을 서로 통한다고 보는 것은 동양적인 발상에 가깝다. 바로 이러한 발상이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양극단이나 그 사이에 위치한 다양한 현상들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경우, 각자의 요소들은 서로 통합을 형성하지 못한 채 분산된 양상으로 남게 된다.

¹² 조나단 T. 페닝톤, 『복음서 읽기: 내러티브와 신학적 개론』 류호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555.

그러나 바로 이들을 전체적 · 유기체적 입장에서 아울러내는 통의 방법으로 보면, 이들에게서 연관성, 상보성, 상호작용성을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전체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부분적 · 개별적 입장들을 아울러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개별성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체계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다.

전체적 · 유기체적 입장에서 아울러낸다는 것은 중간적 입장에서 이들을 뒤섞어 혼합한다거나 혹은 평균화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서로 다른 것 사이의 의사소통을 이루어내면,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든, 혹은 어느 사회영역이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있게 마련인데, 이 양자는 일반적으로는 서로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때, 각자의 입장은 특정 상황을 동반하여 각각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양자 간의 대화 가운데 그들의 주장이 더욱 좋은 최선의 합의점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들 영역을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보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느 한 극단에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볼 때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극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시는 대목만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 관점에 들어맞는 장면만 골라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징계부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치시는 장면까지 늘어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3. 통(通)성경과 신학적 해석의 관계

a. 통(通)성경과 신학적 해석의 필요성

통(通)성경은 성경을 단편적 본문이나 주제별로 분절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속사적 이야기로 읽고 이해하려는 해석적 접근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계시라는 전체 위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구속사의 흐름을 중시한다. 따라서 통 성경은 단순한 성경 읽기 방법을 넘어, 성경 이해의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신학적 해석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할 것인가는 신학적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통(通)성경은 자료와 구조를 제공하고 신학적 해석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와 진리를 조직화한다.

b. 신학적 해석 안에서 통(通)성경의 기능

신학적 해석은 성경 본문을 단순히 역사적 문헌이나 종교적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전통 속에서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통(通)성경적 접근은 신학적 해석이 본문을 왜곡하거나 특정교리 체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문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는지 검증함으로써, 신학적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통(通)성경은 조직신학과 교의신학이 범하기 쉬운 ‘본문의 선택적 사용’을 비판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通)성경은 신학적 해석에 대해 교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신학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c. 통(通)성경과 신학적 해석의 관계

통(通)성경과 신학적 해석의 관계는 대립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이다. 통(通)성경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신학적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학적 해석은 통(通)성경을 통해 읽힌 성경의 내용을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로 체계화한다. 통(通)성경 없는 신학적 해석은 자의적인 추론으로 흐름을 위협이 있고, 신학적 해석 없는 통(通)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이야기로 그칠 수 있다.

Ⅲ. 통(通)성경 관점으로 본 사복음서

A. 사복음서의 개관과 신학적 구조

1. 마태복음-왕으로 오신 예수¹³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기록되었다. 마태는 구약 인용을 130여 구절 수록하였는데 “이루려 하심”이라는 인용구를 사용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강조하였다.¹⁴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천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1천년 전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한 문장 안에 구약 2천 년의 역사가 정리되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¹⁵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로 원래 그의 직업은 세리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즉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마태복음 9:9-13).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책이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¹³ 장정일 박사는 그의 저서 『신약탐험』에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 (1)-(3)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왕의 메시지와 왕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¹⁴ 장정일, 『신약탐험』 (서울: 킹덤박스, 2012), 28.

¹⁵ 조병호, 『성경통독레시퍼』 (서울: 통독원, 2025), 337.

성취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마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약을 자주 인용했다(마태복음 93회, 마가복음 49회, 누가복음 80회, 요한복음 33회 인용).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한다(8번 사용).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에는 교회의 시작이 나온다(마태복음 16:18-19).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도 자세히 다룬다.¹⁶

마태복음은 유대교와의 논쟁점에 대한 관심사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논쟁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의 강화가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은 중요하고 다섯가지 강화가 들어 있다. 첫 번째 강화는 축복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과의 동행(마태복음 5-7장), 두 번째 강화는 선교에 대한 가르침(마태복음 10장), 세 번째 강화는 천국(마태복음 13장), 네 번째 강화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원리, 책임과 용서(마태복음 18장), 다섯 번째 강화는 유대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에 이어서 종말론적인 강화이다(마태복음 23-25장).¹⁷

고난에 관한 서술에서는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마 26:6-13)과 유다의 배신(마 26:14-16)을 기록한 후에 바로 성찬예식을 제정하신(마 26:26-30) 최후의 만찬(마 26:17-30),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마 26:31-35), 갯세마네(마 26:36-46), 붙잡히심(마 26:47-56),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예수님(마 27:1-2), 가롯 유다의 죽음(마 27:3-10),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마 27:11-26), 예수님에 대한 군인들의 대우(마 27:27-31), 십자가의 처형과 조롱(마 27:32-44), 예수님의 죽으심(마 27:45-50),

¹⁶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신약편)』 (서울: 조이플 북스, 2020), 16.

¹⁷ 데럴 벅,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신지철,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17), 37.

이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마 27:51-56), 예수님을 장사 지냄(마 27:57-61), 무덤을 지키는 자(마 27:62-66)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전개된다. 그후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마 28:1-17) 나오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마 28:18-20) 적은 무리의 목격자들의 어깨위에 있는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¹⁸

마태복음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던 구원이 드디어 그들에 임했다며 구체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 구원이 임했다며 보편성도 강조하신다. 이스라엘에게 볼 수 없었던 믿음을 이방인들에게서 찾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고(마 28:19) 승천하셨다.¹⁹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 언약을 성취하신 왕적 메시아로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열방으로 확장되는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로 연결되며, 의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며, 새 언약 공동체로서 열방을 향한 교회를 보여준다.

2. 마가복음-종으로 오신 예수

¹⁸ D. A. 카스, 더글라스 J. 무, 레온 모리스, 『신약개론』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3), 65-66.

¹⁹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마태복음 I』 (서울: 이엠, 2021), 92.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복음선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고 선포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심은 중요한 일이다.²⁰

본서의 저자 마가의 이름은 요한(사도행전 13:5, 13) 또는 요한마가 (사도행전 12:25, 행 15:37)로도 불린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다. 그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베드로전서 5:13).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의 집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곳이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장소이기도 하다. 마가복음은 A.D. 55-63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본다. 마가복음은 일차적으로 당시 핍박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삶이다.²¹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된 복음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마가복음의 개요는 예수님의 생애를 탐구하는 기본 구조가 되었다.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주요 단원(막 1:16-8:26)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관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마가복음 1:16-20, 막 3:13-19, 막 6:7-13).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²⁰ 신현우,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 나라』 (부산: 등과 빛, 2018), 51.

²¹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신약편)』 (서울: 조이플 북스, 2020), 16-17.

언급되고 마지막에 요약적인 설명이 제시된다(막 3:7-12, 6:1-6, 8:22-26). 이 복음서의 전환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다(막 8:27-31). 이 신앙고백이 있기 바로 전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묘사하는 한 가지 이적 사건이 소개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되어진 이후에, 그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차례 가르치신다. 대략 이 복음서의 절반 정도는 예수 사역의 마지막 주간을 향한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약 사분의 일의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 마가에게 마지막 주간에 발생한 사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강화가 들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다(마가복음 4:1-33). 또 하나는 종말에 관한 것이다(마가복음 13:1-37). 또한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가복음에는 스무가지나 되는 ‘이적기사’가 언급된다. 병 고침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과 연결된 채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복음서 전체의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²²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는 데(막 8:27-30), 이 사건의 강조점은 군중들과 기적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에서 제자들과 십자가로 옮겨가는 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단원은(막 8:27-10:52),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 제자들의 실패,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교훈을 연속적으로 세 번 반복하신 것이(막 8:31-38, 막 9:30-37, 막 10:32-45) 핵심을 이룬다. 또한 이 단원에는 변화산 사건과(막 9:1-13), 어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막 9:14-29)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김(막 9:38-50), 이혼(막 10:1-12), 겸손(막 10:13-16), 그리고 부자가 제자되는

²² 벡,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46-48.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단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바디매오에게 시선을 주시는 사건(막 10:46-52)으로 종결된다.

예루살렘 입성은 이 복음서의 다음 단계의(고난 주간에 앞서 여러 종류의 유대인 무리들, 그리고 권세잡은 자들과 부딪히는 기간) 시작을 예고한다(막 11:1-13:37). 메시아적 성격을 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막 11:1-11) 충돌의 무대를 만들고, 유대교의 한복판에 파문을 일으킨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은(막 11:12-19)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은 믿음에 관한 교훈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비유의 역할도 한다(막 11:20-25). 따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거나(막 11:27-33),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주제로 하는 비유들을(막 12:1-12) 말씀하시는 것을 이 단원에서 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바라새인으로부터 이방인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막 12:13-17),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교리에 관한 질문을(막 12:18-27), 그리고 한 서기관에게서는 율법중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막 12:28-34) 받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시편 110편의 해석에 관하여 질문하신다(막 12:35-40). 과부의 희생적인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후에(막 12:41-44), 영광중에 임할 승리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다가올 환란중에도 충성을 다하라고 격려하시는 감람산 설교(막 13:1-37)가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원은 고난에 관한 기록과(막 14-15장),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로(막 16장) 구성되어 있다. 마가는 정확한 날짜에 대한 유일한 언급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할 때가 유월절 이틀 전이라” (막 14:1-2)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는 사건(막 14:3-9)은 단순한 환대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 그의 왕적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된다(막 14:3-9).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를 암암리에 진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다(막 14:12-26).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셨다. 만찬 후에(막 14:12-26),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의 겿세마네로 떠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다(막 14:27-52).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번 재판을 받으신다. 유대인의 최고의 공회 산헤드린 앞에서 한밤중에 심문을 받으시고(막 14:66-72;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산헤드린 앞에서 이른 아침에 다시 심문을 받으시고(막 15:1), 로마 총독 앞에서 결정적인 재판을 받으신다(막 15:2-15).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위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께서는 군인들에 의해 조롱을 당한 후에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신다(막 15:16-41). 같은 날 장사 지낸 바 되지만 (막 15:42-47). 그가 묻히는 것을 본 두 여인의 절망은 빈 무덤과 부활에 관한 천사의 소식 앞에서 놀라움으로 바뀐다(막 16:1-8).²³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또 그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머지않아 구름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역사상 단 한번 일어난 사건이다. 이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²⁴

²³ 카스 외, 『신약개론』, 95-96.

²⁴ 김형주, 『마가가 만난 예수』 (서울: 솔로몬, 2011), 763.

마가복음은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고난속에서 형성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으로 구약과 연결되고,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 교회정체성의 의미를 지닌다.

3. 누가복음-인자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골로새서 4:14)로 헬라인이다. 공식적인 독자는 ‘데오빌로’ 인데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이름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로마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 어쨌든 누가는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 정확하게 전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를 뛰어난 문헌능력과 수사학적 기술을 소유한 사람으로 본다. 누가는 신앙적 열정과, 의사로서의 세밀함으로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이 간과했거나 크게 눈여겨보지 않은 문제들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기술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이야기로 가득하다.²⁵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다. 이 복음서에는 가르침과 이적과 비유가 섞여 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비유들을 제공해 준다. 누가복음의 자료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다. 마태는 강화라는 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반면에 대개 작은 단위로, 누가는

²⁵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신약편)』, 17.

자신의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산시키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은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누가복음 7:36-50, 눅 11:37-52, 눅 14:1-24, 눅 22:1-38, 눅 24:36-49). 고대 그리스의 향연은 지혜와 대화가 결합된 공동체적 학습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학습과 토론의 맥락과 유사성을 지닌다. 한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역사적·구속사적 전개를 보여 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복음서의 전반부는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누가복음 9-19장은 이 복음서에서 독특한 부분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숙명의 여행을 하신다. 이 핵심 부분에서는 두 가지 중심 주제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곧 유대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거부당하시는 것과 장차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준비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함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계와 가치관의 측면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존재로 제시된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누가복음 23장).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여행을 다루는 부분이 보여 주듯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대비해서, 누가는 제자들이 철저히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것과 비슷한 시도를 한다(요한복음 13-17장).²⁶

누가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제시한 이후(눅 15:1-32),

²⁶ 벡,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52-54.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소개하고(눅 16:1-9), 이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포함한 재물 사용에 관한 교훈들을 서술한다(눅 16:10-31). 또한 이 단락에서는 섬김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눅 17:1-10), 열 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눅 17:11-19),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교훈(눅 17:20-37), 그리고 기도에 관한 두 비유(눅 18:1-14)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초대하는 장면(눅 18:15-17)과 부자 관원 이야기(눅 18:18-30)도 함께 배열되어,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가르침을 형성한다. 누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수난을 예고하신 사건(눅 18:31-34)을 전환점으로 제시한 뒤, 여리고 인근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과 삭개오 방문을 서술함으로써(눅 18:35-19:10)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어지는 므나 비유(눅 19:11-26)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눅 19:28-44)과 연결되며, 메시아적 왕권과 심판의 주제를 대비적으로 드러낸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단락은 성전에서의 행위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성전정화 사건과 권위 논쟁(눅 19:45-20:8)은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부각시키며, 악한 농부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 반응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어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과부의 헌금 사건이 배치되고(눅 20:45-21:4), 종말 담화가 제시되면서(눅 21:5-36) 성전에서의 가르침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된다(눅 21:37-38).

수난 이야기는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되어(눅 22:1-6), 최후의 만찬과 다락방 교훈(눅 22:7-38), 겐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체포(눅 22:39-54)로 이어진다. 이후 베드로의 부인, 공회와 로마 권력 앞에서의 심문 과정(눅 22:55-23:12), 그리고 사형 선고와 십자가 처형(눅 23:13-49), 장사(눅 23:50-56)가 단계적으로 전개된다. 부활 이야기는 빈 무덤과 천사의 선포(눅 24:1-11)에서 시작하여

베드로의 확인(눅 24:12), 엠마오 도상의 현현, 그리고 제자공동체에게 나타나신 사건(눅 24:36-49)으로 확장되며,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완결성을 드러낸다. 누가는 승천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끝 맺는다(눅 24:50-53).²⁷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구원약속이 모든 민족을 향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를 강조한다. 성령받은 구원의 증보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구원의 보편성과 회복과 해방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고 성령에 의해 파송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4. 요한복음-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그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사실(요한복음 13:23-25)과 베드로의 동료였다는 사실(요한복음 1:35-42, 요 13:23-24)이 증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공관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한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만 제외하면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지방에서의 사역을 강조했다.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한 번만 언급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세 번(요한복음 2:13, 요 6:4, 요 13:1)이나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 이상이었음을 암시한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²⁷ 카스 외, 『신약개론』, 120-121.

두고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 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 그리고 ‘영생’ 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로써의 예수님을 강조한 책이다.²⁸

요한복음 역시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원과 공적 사역, 죽음과 부활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며, 분명한 저술 목적 아래 구성되었다.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요 20:30-31), 이러한 목적의식 속에서 당시 공동체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서술을 전개하였다.²⁹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깊은 일치를 이루며 사역하시는 존재로 강조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긴밀히 결합되어 전개된다는 점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성육신에 대한 선포로부터, 일곱가지 표적들에 대한 기사와 여러 가지 대화 형식의 강론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유일성을 돋보이게 한다. 문학적인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 사이에 일곱가지 표적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였다(요 12:37-40),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다(요 9:25).

공관복음과는 달리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없다.

요한복음은 치유, 회복, 그리고 양식의 공급과 같은 표적 사건들에 주목하며, 이를

²⁸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신약편)』, 17-18.

²⁹ 카스 외, 『신약개론』, 149.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 행위를 넘어, 예수님이 유대교의 종교의식 체계와 율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우월한 분임을 강조하는 신적 기능을 수행한다(요 1:17, 요 2:19-21, 요 7:37-39, 9:28-41, 요 10:1-18). 특히 다수의 표적이 유대 절기와 연결된 맥락 속에서 제시된다는 점은, 예수님이 기존 종교 체계의 성취이자 대체자로 제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표적들은 이 절기들이 상징하는 바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하시시지를 두드러지게 나타내 준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표적들을 보지 않고서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다(요 20:29).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자’로 알려진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길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요 1:14-18). 이것은 빛으로서 그가 수행하는 역할의 한 부분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해 준다(요 13:1, 11-17).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도록 이끌 것이다(요 10:1-18).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요 3:14-16).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와 갈릴리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그는 ‘보혜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능으로 덧입히는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오실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는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또한 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요 14:25-31, 요 16:8-11).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요 4:8-10, 요 7:37-39).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사랑과 하나 됨’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사랑과 하나 됨의 모델은 예수님의 자기희생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서 발견된다(요 13:31-35, 요 17:1-26). 공동체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제자들은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요 15:1-6).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독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은 선언한다(요한복음 20:30-31).³⁰

요한복음이 기여한 중요한 것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요한복은 공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수난, 부활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며 보다 입체적인 신학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선택과 배열, 그리고 신학적 강조점에 있어 차별성을 보이며, 때로는 공관복음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루는 내용을 심화하여 서술한다. 이러한 독자적 관점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그리스도론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 이해의 신학적 깊이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은 단지 특정한 기독교론적 명칭을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가(예: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아니면 사복음서가 모두 가지고 있는가(예:

³⁰ 벡,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60-64.

인자, 그리스도, 왕)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시다. 인자가 메시아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과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신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하며 아버지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를 특별히 부각시킴으로 그의 위치를 강조한다.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은 그분의 사역이 독자적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셋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버지를 계시하는 존재로 강하게 증언하지만, 구원을 단순한 인식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의 획득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은 계시에 대한 실존적 응답과 관계적 참여를 포함하는 사건으로 제시되며, 이는 영지주의적 이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요한의 기록은 복음서 장르에 속하며, 그의 서술 구조와 신학적 전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계시적 순간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목자의 죽음이며(요한복음 10장),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며(요한복음 11장), 세상을 위해 버린 생명이며(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이고(요한복음 1장), 그의 생명, 평화, 기쁨, 그리고 영(요한복음 14-16장)을 결과적으로 가져다준 순종한 아들의 승리이다.

넷째, 요한복음의 독특한 종말론적 이해는 ‘때’ (hour)라는 신학적 개념의 사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요 2:4, 7:6), 이 용어는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의 성취를 시간적·구속사적 절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주요 신약성경의

골격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 약속된 마지막 때가 이미 임하였다는 엄청난 진리를 표현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 희망의 완성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긴장상태를 나타낸다. 여러 다른 저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긴장 상태를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임하고 있으며 임했다고 했고(요 4:23, 5:25), 예수께서는 그의 평화를 주셨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요 16:33).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승천과 그의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종말론적 축복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한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희망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와 아버지께 의해 심판의 권한을 받은 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요 5:28-30). 만일 요한이 예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현존하심을 주장하고 있다면(요 14:23), 그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그들을 모으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요 14:1-3).

다섯째,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공관복음과 일부 유사점을 가지지만(요한복음 3:34, 4:14-21),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신학적 강조가 뚜렷하다. 예수님은 성령을 단순히 소유하고 나누어 주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 언약의 실현과 그에 따른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권한을 성령에게 위임하신 분으로 나타난다(요한복음 3:5, 7:37-39). 고별설교에서(요한복음 14-16장), 보혜사로 약속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제시되며, 이는 요한복음 안에서 성부·성자·성령의 관계가 긴밀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후대에 삼위일체 교리로 체계화된 신학적 요소들이 이미 요한복음의 서술 속에 내재해 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요한은 마태복음과 같이 구약 본문을 직접적으로 자주 인용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암시와 상징을 통해 구약 전통을 심층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예수님은 성전, 포도나무, 성막, 놋뿔, 유월절과 같은 옛 언약의 주요 상징과 제도를 성취하고 대체하는 분으로 묘사되며, 이를 통해 구속사적 연속성과 완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의 내면에 깔린 해석학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동시대 인물로부터 반복적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서술된다. 요한은 이러한 오해의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참된 의미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신학적 장치를 활용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질문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 복음서는 예수께서 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성취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대신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 이후까지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주장한다.

여덟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교회의 질서와 규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선택, 생명, 근원, 본성, 증인, 고난, 결실, 기도,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언급한다.

아홉째, 요한복음은 특정 주제에 있어 공관복음보다 더 심층적이고 신학적으로 발전된 논의를 제시한다. 그것이 그의 단어가 제한되고 있고, 특정한 단어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주요 이유이다. 이러한 반복 사용은 그에게는 그만큼 중요함을 가리킨다.

열째, 요한복음은 선택과 믿음, 그리고 표적의 기능을 상호 연관된 주제로

지속적으로 다룬다. 표적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로 믿음이 형성될 때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요 10:38). 그러나 요한은 표적 자체에 의존하여 신앙을 형성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요 4:48). 나아가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신앙이 보다 성숙한 형태로 제시되며(요 20:29), 궁극적으로 믿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을 부르시는 주권적 선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요 6:37-44). 이러한 진술은 요한복음의 복음 이해가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포괄하는 신학적 구조 위에서 있음을 보여 준다.³¹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생명으로 현존하심을 증언한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창조와 출애굽, 성막의 성취를 통해 구약과 연결되며, 생명과 빛으로 현재화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난다. 증언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B. 사복음서의 영성과 신학

영성이란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knowing), 하나님의 일인 ‘기록된 예수’를 믿고(Beleving),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Obeying), 그 결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Experiencing),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다(Glorifying).

³¹ 카스 외, 『신약개론』, 194-196.

1. 마태복음의 영성-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이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아버지’ (마 6:9)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태에게 있어서 영성을 위한 출발점은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이다. 그도 이 점을 예수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밝혔다.

첫째로, 그는 복음서의 서두에서 신적인 임재를 강조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질서 잡힌 계보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마 1:2-17). 예수를 잉태한 것은 철저히 기적이고, 이는 성령의 사역으로 돌려진다(마 1:18, 20).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드러내는 신학적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21).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 1:23).³²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과 함께 계신 하나님” 으로 이해되며, 동시에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 묘사된다.³³

³²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1-2).

³³ 마태복음 서문의 이름들과 이름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K. Stendahl의 “Quis et Unde? An Analysis of Matthew 1-2,” in G. N. Stanton, ed.,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London: SPCK,

마태복음의 끝 부분 역시 신의 임재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혹은 뒤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 지진, 무덤들이 기적적으로 열리는 것과 성도들의 부활, 백부장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고백,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지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남, 처음에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열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자신의 나타남은 신현의 특성을 지녔다(마 27:51 이하). 그가 출생할 때에 예수가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었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 또한 신적이고 구속적인 임재를 나타내 준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예수의 최후의 말씀들이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이 임재는 이와 같이 기적적인 과거의 사건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에서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약속된다.

예수에 대한 마태의 이야기 처음과 마지막 부분 사이에도 신적인 임재에 대한 느낌(무엇보다도 예수 자신 안에서)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 세례요한과 예수가 선언한 메시지(마 3:2와 4:17)는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의 ‘세례받음’ 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자기위에 ‘임하였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그리고 하늘의 음성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말씀했다(마 3:16-17).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고, 사탄의 시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증언한다(마 4:1-11).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메시야로서, 예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예로 마 5-7장), 많은 기적들을 수행했다(예로 마 8-9장). 전도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했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20)-을 확신시켜 주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호칭하였으며, 아들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로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계시를 전하였다(마 11:25-30).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1-18절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적인 임재를 상기시켜 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높은 산 위에서(시내산으로 추정되는) 빛나는 구름은 그를 덮었고, 세례 때와 같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제자들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엎드렸다.

마태복음은 영생을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히 연결하여 서술하며, 기독교 영성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적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우리과 함께 계신 하나님’ 이고, 우리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분은 예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의 영성은 ‘신 중심적’ 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이고, 이는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수를 신의 아들로 동일시하는데 주요한 표현으로 주어진 헌신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⁴

2. 마가복음의 영성-섬김과 헌신의 영성

너무나 기본적인어서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점에서부터 시작한 마가의 영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과 관련된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기독교론이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³⁴ 스티븐 C. 바턴, 『사복음서의 영성』 김재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1-22.

시작이라” (막 1:1)-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뚜렷한 기독교론적인 관심 뒤에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신학이 놓여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토대의 몇몇 함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사야가 말한(막1:2-3)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제시되었다. 이는 마가가 알려준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급, 즉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처럼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는 언급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마가 영성의 근거에 놓여 있는 신념이다.

둘째, 이야기 가운데 두가지 중요한 지점-세례받을 때(막 1:11)와 변화할 때(막 9:7)-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예수와 관계가 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예수의 공적 사역 초기에 나타내 주고 있다. 두 번째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기독교론적 고백과 고난에 대한 예수의 첫 번째 예언(막 8:27 이하) 후 이야기의 전환점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예수의 위상을 재확인해 준다. 마가의 기독교론은 그의 신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예수를 그의 아들로 지명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는 단지 중재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형태이다.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초월적이고 신비적이다. 즉 항상 계시지만 단지 간접적으로 계시다는 말이다.

세 번째로 관련되는 점은 마가는 예수가 갈릴리로 왔을 때 전파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 (막 1:14)으로 묘사하고 요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막 1:15)의 도래에 관심을 갖는다. 마가에 따르면 이것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막 1:1)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막 1:14-15)라는 두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의 선택된 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출범시킨다.

네 번째 사항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에,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막 1:24) 부정한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자’ 라고 규정한다.³⁵

3. 누가복음의 영성-자비와 긍휼의 영성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고쳐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을 옳게 해주심으로써, 세상에서의 권력의 중심을 통치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궁핍을 아는 사람들에게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로, 명령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로, 명령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기셨다.³⁶

모든 복음서와 대부분의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누가에 의하면 영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달리 표현하면,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신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³⁵ Ibid., 59-61.

³⁶ 글랜디온 카니, 윌리엄 룡, 『예수영성』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9), 200.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신적인 은혜의 계시를 아무리 짧게라도 서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가의 영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누가는 새시대가 동터움을 믿는다. 이 새로운 시대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절정이며 정점이다. 성취라는 개념이 전체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눅 1:1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언급한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올 것이 언급된다(눅 1:17). 마리아의 송가는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언으로 끝난다(1:54~55).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찬송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는 것을 확언한다(눅 1:68 상반절).

둘째,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탄생 이야기와 유아 시절 이야기가 누가복음 처음 두 장에 등장하는 이유이며,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도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이는 누가복음에서 특이하다-이유이다. 요한이 설교와 물세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가(눅 3:1-20) 이후에 예수에 의해 대체되는 것처럼(참조 눅 3:23 이하), 요한의 탄생 역시 처음부터 더 위대한 자인, 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예수의 탄생을 위해 빛이 가려진다(눅 1:80과 눅 2:52).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의 믿음이 철저하게 메시아적이라는 점이다. 새 시대는 메시아와(눅 1:32-3, 68-79, 눅 2:4)와 세례요한의 탄생과 함께 왔다.

셋째, 누가는 새시대는 종말적인 성령의 시대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서두에서의 요한과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과 사도행전 서두에서의 교회의 탄생 모두가 성령의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유이다.

넷째, 누가는 새시대는 종말이 도래하기 전의 구원의 시대라고 믿는다. 달리 표현하면, 요한과 예수와 이후의 교회의 시대는 신적인 은혜의 시기이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눅 1:47).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눅 1:77). 천사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 목자들에게 알린다(눅 2:11).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눅 2:21), 자신의 증언을 끝내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말한다(눅 2:47).³⁷

누가 영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양상 중의 하나는 기쁨이다.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온 종말적인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엄청난 기쁨의 폭발로 표현되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분위기가 누가에서는 지배적이어서 그의 복음서는 ‘기쁨의 복음서’ 로 알려지게 되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누가 영성의 두 번째 중요한 양상은 회개(repentance)와 회심(conversion)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누가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metanoia(회개)와 metanoein(회개하다)은 누가복음에서 14번 등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이 되는 횟수이다.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눅 5:27-32 평행구 눅 2:13-17)에 대한 누가 편집에서, 마가가

³⁷ 바턴, 『사복음서의 영성』, 102-104.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기록한 부분에서 누가가 ‘회개시키러(eis metanoian)’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중요하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눅 7:34, 마태병행구 눅 11:19)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들이 회개한다는 조건에서만 그렇다!” 두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벡크(Brian Beck)는 “누가에게 있어 ‘회개와 용서’ 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합쳐진다” 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타당하다.³⁸

누가가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는 세 번째의 가능한 이유 또한 신학과 영성에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신적인 자비가 보편적인 규모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누가복음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거리의 창녀들, 거역하고 비참해진 아들, 부유한 세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포함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되는 누가의 영성에서 주요한 측면들로서 기쁨과 회개와 회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제 세 번째의 주요한 양상은 믿음이다. 믿음은 회개와 회심의 아주 자연적인 귀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시작하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으로 누가는 이해한다.³⁹

4. 요한복음의 영성-사랑과 연합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죽은

³⁸ Ibid., 106, 110.

³⁹ Ibid., 119-120.

자를 생명 있는 자로, 육체 중심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구속적 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참된 사랑으로 변화된 신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 즉,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에서 드러난다. 사랑의 능력은 인간의 내적 사고와 태도를 변혁시키는 신비한 힘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형상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⁴⁰

데이비드 베너(David G. Benner)는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의지를 자발성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랑이든지 그런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다. 완전한 사랑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잠재력이 있다”⁴¹고 피력했다.

제4복음서의 영성에 대해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인 영성(a personal spirituality)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혹은 서로간에 맺는 관계속에서의 개인들과 관계가 있다. 이 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또 서로 서로간에 참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계시를 평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개인적인 형식으로 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4, 18).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은총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란 그러한 은총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다. 그리고 이 계시가 개인적이고 성육신된

⁴⁰ 옥이들, 『요한복음에서의 영성과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24.

⁴¹ Michael Reeves,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장호준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6), 28.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이고 성육신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요한의 영성에서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는 방식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강한 인격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는 유일하신 아들이다. 유일하신 아들이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오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그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로 계시하며,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강렬한 사랑, 상호성,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서 독특하다. 그것은 예수가 세상에 주는 ‘영생’을 독특하게 표현한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1:12)이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요 3:16)라는 관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독특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역사상의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계시되었다. 그것이 복음서 기자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이다. 이 복음서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통분해하시고’, 그 자신도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요 11:33-35),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대가로 사랑받으시는 (그리고 배반당하시는) 분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또한 복음서 기자가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요한과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루살렘 입성, 가야바와 빌라도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한의 영성이 갖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격은 순전히 사적이거나 개인적이며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상의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서 구체화된다.

셋째, 그 계시는 매우 인상적인 개인 대 개인(person-to-pers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각 사람들은 개인적인 증인이 된다. 아버지는 아들의 증인이(요 12:28), 아들은 아버지의 증인이 된다(1:18). 요한은 예수의 증인이 되고(요 1:29), 다른 많은 사람들-안드레, 빌립, 나dana엘 등 도 증인이 된다.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모든 등장 인물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복음서 기자가 매우 개인적이고 친숙한 일대일의 만남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요 3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요 4장), 예수와 병자의 만남(5장) 예수와 눈먼 자의 만남(요 9장), 예수와 ‘그에게 속한 자’ 간의 만남(요 13-17장), 예수와 빌라도의 만남(요 18:28-19:16) 등은 이 중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다. 이러한 만남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문제로서 그를 따르겠다거나 반대하겠다는 각자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⁴²

⁴² 바턴, 『사복음서의 영성』, 159-161.

IV. 통(通)성경 관점으로 본 예수님 사역

A.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구속사적 위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준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요셉의 경험이 강조되어 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은 아니시지만, 다윗의 신앙적 후손인 요셉을 통해 결국 왕좌의 법적인 후사가 되신다. 요셉의 의로운 성품은 성적으로 부정할 일처럼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그의 계획은 정혼한 마리아를 희생시켜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천사의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따랐다는 사실 역시 그의 의로운 순종심을 증명해 준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다.⁴³

하나님께서서는 BC와 AD의 분기점에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신 길을 여신다. 이미 8백여년전부터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7:14)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전혀 내려오긴 하였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이

⁴³ 마크 L. 베일리, 탐 L. 쿨스터블, 『신약탐험』 정인홍 역 (서울: 디모데, 2015), 20.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복음 1:31)라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1:38)라고 순종한다.⁴⁴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도 마찬가지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파혼할 결심을 한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1:20)며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인한 것과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구약에 예언된 임마누엘임을 알려 준다. 요셉도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는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0-14).

목자들은 즉시 달음질하여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가서 천사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이에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경배를 받으신다.⁴⁵

⁴⁴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6), 380.

⁴⁵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 신약편』, 20-21.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이다. 마태가 예수를 ‘나사렛 사람’ (Nazarene, 마태복음 2:23)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마 히브리어 단어 ‘나자르’ (nazir)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 이 단어는 작은 나뭇가지를 뜻하는데 나사렛이란 동네가 바로 조그만 이름 없는 마을이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은 바로 메시아의 겸손한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예수님은 어린시절을 보내실 때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이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당시에는 유월절이 되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거기서 절기를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흘길을 와서야 비로서 부부가 만났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예수가 없어졌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11세까지는 엄마랑 같이 다녔다. 그런데 12세부터는 남자로 인정받아 아빠랑 다녔다. 보통 예루살렘에서는 여자와 아이들 있는 데가 다르고 남자가 있는 곳이 달랐다.⁴⁷

B. 예수님의 주요 사역

1.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은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⁴⁶ 베일리, 컨스터블, 『신약탐험』, 22.

⁴⁷ 유진소, 『즐거운 성경 66권 탐구』 (서울: 두란노서원, 2010), 375.

사랑하셨는지 사복음서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예수님의 다섯가지 사역으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서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실천으로 ‘한 영혼 사랑’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⁴⁸

2. 예수 사역의 자기비하와 헌신: 긍휼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신 상황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셨다. 천사는 피곤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피곤하셨다. 40일 금식후에 주리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 8:20)라고 말씀하시고, 거친 풍랑을 만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시고, 모여드는 병자들과 사람들로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병든 사람의 환부에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⁴⁹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인 이유로 피곤을 느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타적인 이유로 피곤한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그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라 피곤하기까지 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참 많다. 질병으로 고통

⁴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3), 435-436.

⁴⁹ 조병호, 『성경통독레시피』 (서울: 통독원, 2025), 369.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게 공생애 3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가족들조차도 포기한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고쳐 주신다. 그 밤에 갈릴리 호수는 폭풍으로 배가 뒤집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심한 폭풍을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밤에 풍랑 이는 호수를 건너가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삶이었다.⁵⁰

3.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모든 준비였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다.⁵¹

a.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마 21장; 막 11장; 눅 19:28-48; 요 12장)

예수님께서서는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슌 9:9) 어린

⁵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444-447.

⁵¹ Ibid., 460.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러지기 위한 마지막 방문이다. 요한복음 12:1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날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러지는 어린 양이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외쳤다(요 1:29).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유대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하셨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최선을 다하셨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다. 모두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역의 완성을 위한 준비인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왕으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일반적으로 왕은 준마를 타고 다닌다. 위엄과 권위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준마가 아닌 어린 나귀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샬롬, 에이레네)을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새끼를 타고 오셨다. 세상에 평화를 전하러 온 이가 준마를 타고 칼이나 활이나 창 같은 무기를 갖추고 정복자처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⁵²

⁵²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 신약편』, 41-42.

b.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 (마24-25장; 막13장; 눅21장; 요16장)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3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둘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한 것은 당시 제자들이 성전 파괴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마태복음 24:4-8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난의 전반부 3년 반을, 9-26절은 7년 대환난의 후반부 3년 반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8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요한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뿔 때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4:5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는 말씀과 일치된다. 계시록 6장 둘째 인을 뿔 때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하는 자(전쟁을 일으키는 자)로 마 24:6-7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와 일치한다. 셋째 인의 검은 말을 탄 자의 저울과 곡식은 기근(마 24:7)을 나타낸다. 넷째 인의 청황색 말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인데 질병과 지진(마 24:7)을 나타낸다. 다섯째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제단 아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는다. 마태복음 24:9의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에 해당된다.

예수님은 7년 대 환난에 관해 설명하신 후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말세때 예수님의 재림은 그 날 환난 후(29절)에 즉시 일어난다. 그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와 함께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택하신 자(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 예수님은 이 때의 징조들을 무화과나무 비유와 노아시대의 홍수 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다.⁵³

c.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마 26-28장; 막14-16장; 눅22-24장; 요13-21장)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단계,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장면은 극적인 절정에 이르기 전의 긴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폭풍 전야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임박한 긴장감과 중요성을 지닌 장면이다. 2절을 본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 긴박한 장면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 유형의 인물을 배치한다. 첫째,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대제사장과 장로들, 둘째,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으며 경배와 헌신을 드린 한 여인, 셋째,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물배치는 사건 전개와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서술적 전략으로 기능한다.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등장시켰다고 말하는 이유가

⁵³ Ibid., 47-49.

있다. 원래 마태복음 26:6-16의 내용은 마태복음 21:17 뒤에 나와야 할 내용이다. 요한복음은 향유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만찬 직전에 기록함으로써 각 저자의 서술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요한의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한다. “유월절 열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 (요 12:1)라는 구절의 위치는 단순히 사건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학적·서술적 배열로 이해할 수 있다. 마태와 마가가 사건 순서를 정확히 몰라서가 아니라, 향유 사건을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다룬 두 단락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와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의 반역적 행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한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왜 나사렛을 떠나 먼 베들레헬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했을까?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 주전 63-주후 14년)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탄생 시기에는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제국은 황제의 권위 아래 다양한 지역과 민족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정치적 체계를 의미한다. 로마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서남부, 영국, 북아프리카, 아시아와 동유럽 상당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였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여러나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정교한 법 체계를 확립하였다. 정복한 나라에는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군대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피지배 지역에서는

적국의 침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아 로마나(Via Romana)로, 비가 오는 날에도 마차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로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말이 생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비아 로마나를 통해
 전파되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길이 비아 로마나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할
 길을 미리 닦아 놓은 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니, 놀랍고 신기할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리스어(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제국 전역을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어디에서 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시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했다. 왜냐하면 황제가 각 국가의 종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준
 탓이다. 무슨 말일까?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짜냈는데, 그중 하나가 만신전(Panteon)을 만든 것이다. 비록 자기 국가가 로마에
 져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기분은 나쁘겠지만, 대신 자국의 신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모셔 놓고 예배하도록 한 것이다. 시민들도 로마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존중해
 주니 싫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행 17:23)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했다. 그렇게 헛된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행복했을까? 아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다. 그런 시대였기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⁵⁴

자색 옷 입히심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풍자적 조롱 행위이고, 가시 면류관 씌우심은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권을 풍자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는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고, 침 뱉음은 조롱과 희롱이며, 자색 옷을 벗김은 피로 붙은 상처에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함은 최고의 수치심을 주는 것이며(신명기 21:22-23, 참조), 십자가에 못 박음은 로마가 식민지들에게 집행하는 최고의 극형이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철언을 말씀하시다. 운명 후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깨져 무덤이 열리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며,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신앙고백을 한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이므로 당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지냄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이사야 53:9).

부활의 증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등 몇 명의 여인들의 목격,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심,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심, 갈릴리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500명에게 나타나심, 야고보에게 나타나심,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여인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가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고, 특히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⁵⁵

⁵⁴ 임경근, 『세계 교회사 견기』 (서울: 두란노, 2021), 23-25.

⁵⁵ 노상균, 『통독을 위한 성경 다이제스트』 (서울: 올리브북스, 2014), 338-339.

V. 통(通)성경을 사역에 적용한 창원새순교회

A. 창원새순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1. 창원새순교회의 역사와 비전

창원새순교회는 1984년 3월 4일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2동 144-2번지 5/2에서 박영호전도사와 6명(김정오, 김부자, 박기원, 이정숙, 정성일, 류희월)이 모여서 교회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창원새순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상’을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창립비전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삶’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제권을 가진 공동체였다(사도행전 2:42-46; 행 4:34-35). 모든 신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한 성령으로 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고린도전서 12:13). 그렇기 때문에 한 피, 한 몸(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전 10:16-17).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해야 한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이다. 거기에 연합이 있고 참된 교제가 있다. 우리는 모든 댓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도 상호간의 삶을 나누어야 한다. 교회의 건강은 여기에서 부터 시작된다.

둘째는 ‘제자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법이며, 세상을 향한 유일한 전략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다(마태복음 28:18-20; 마가복음 3:13-15). 바울의 사역도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골로새서 1:28-29; 디모데전서 2:2). 제자훈련이란 구원받은 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게 하고, 닮게 하고, 주님께 그의 생애를 헌신하도록 하여 새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고, 보존하며 관리하게 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평신도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요, 얼굴이요, 주인이다.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원래 그들이 해야 할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에베소서 4:11-12). 훈련받지 못한 신자는 무기력한 군중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역은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며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될 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목회자의 단순한 목회철학이나 교회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성경적인 결론을 갖고 있다. 제자훈련은 우리 주님의 방법이다.

셋째는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선교는 비전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마가복음 16:15; 요한복음 20:21; 사도행전 1:8). 창원세순교회가 이것을 창립비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회가 선교에 무관심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결의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진 사람들이다. 이 빛을 우리는 갚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선교사를 키우고 파송해야 한다. 모든 성도는 선교 사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야 한다(빌립보서 4:10-19). 선교에의 참여는 교회의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를 품에 안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긍지이다.

2. 창원새순교회의 목적, 사명, 가치

창원새순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3:33; 에베소서 2:20-22; 골로새서 1:28-29; 에베소서 4:11-16; 고린도전서 10:31; 고린도전서 6:20).

창원새순교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사명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15; 에베소서 4:11-12; 골로새서 1:28-29).

창원새순교회의 가치는 다음의 열가지를 둔다.

첫째는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높여드린다(역대상 29:11-12; 빌립보서 2:9-11; 로마서 10:9-10; 요한계시록 19:16; 골로새서 1:18; 시편 95:4-5).

둘째는 우리는 대그룹과 소그룹,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사도행전 2:46-47; 로마서 12:1-2; 요한계시록 4:8-11; 5:11-14).

셋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 교회가 위치한 창원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포함한다(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15; 사도행전 1:8).

넷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등대와 나침반으로서 성경중심의 설교와 가르침에 따른 적용을 가치있게 여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한다(시편 119:105; 디모데후서 3:16-17; 사도행전 2:42; 야고보서 1:22-25).

다섯째는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셨던 것처럼 이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개인기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중보기도사역을 가치있게 여긴다(이사야 62:6-7; 마가복음 1:35;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12:5; 디모데전서 2:1-8).

여섯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종의 마음가짐으로 헌신하여, 이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이해한다.

일곱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든 성도들과 격의 없는 교제를 나누는 친교 공동체의 형성을 동일하게 중요한 신앙적 가치로 인식한다. 즉 관계를 가치있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가 사역보다 앞선다(사도행전 2:32, 34-35, 44-45; 사도행전 2:42, 46; 요한일서 1:1-4; 로마서 12:15; 요한일서 3:16-18).

여덟째는 우리는 주님의 몸인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따라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 즉 은사중심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전도서 4:9-12; 고린도전서 12:4-11:27-30; 베드로전서 4:10-11; 로마서 12:3-8).

아홉째는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구제를 가치있게 여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계명이며

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령이라고 하셨다(야고보서1:26-27; 야고보서2:1-26; 누가복음 10:25-37; 사도행전 2:46-47; 마가복음 22:34-40).

열째는 우리는 모든 신앙과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이사야9:7; 이사야59:17; 에스겔 39:25; 신명기 6:5; 사무엘하 6:14; 역대상 13:8; 로마서 12:11; 베드로후서 1:3-7; 누가복음 22:39-44; 베드로전서 4:8; 요한계시록 3:19).⁵⁶

B. 창원새순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1. 질적 특징과 생명체적 원리

창원새순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징 8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건강한 교회의 지도력은 권위주의적 통제나 개인 중심적 리더십에 머물지 않고, 성도 각 사람의 은사를 계발하여 사역자로 세우데 초점을 둔다. 둘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직분이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은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열정적 영성이다. 건강한 교회는 형식적 신앙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영성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는 기능적 조직이다. 교회의 제도와 구조는 그 자체가 목적 이나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조직은 사역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비효율적이거나 생명령을 저해하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⁵⁶ 박영호, 『창원새순교회 20년사』 (창원: 인기확인쇄, 2005), 131-132.

개혁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영감있는 예배이다. 예배는 교회의 중심 행위로서,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적 도전을 받는 장이 되어야 한다. 영감있는 예배는 형식의 문제를 넘어 예배를 통해 실제적인 영적 유익과 공동체적 감동이 일어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여섯째는 전인적 소그룹이다. 소그룹은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을 넘어 삶을 나누고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전인적 공동체의 장을 형성한다. 일곱째는 필요중심적 전도이다. 건강한 교회의 전도는 교회의 확장 자체를 목표로 하기 보다 복음이 개인의 실제적 필요와 삶의 상황에 응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덟째는 사랑의 관계이다.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실제적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다.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은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이룬다. 특히 영역의 강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여덟가지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 성장 전략은 프로그램의 확장보다 질적 건강성의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창원새순교회의 생명체적 원리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호의존의 원리이다. 모든 생명체는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긴밀한 관계속에서 가능하다. 둘째는 번식의 원리이다.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재생산과 확장을 지향한다. 교회 또는 복음의 전승과 제자 양육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공동체이다. 셋째는 에너지 전환의 원리이다.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를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형태로 전환한다. 넷째는 다목적의 원리이다. 생명체의 각 기관은 단일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은 예배, 교육, 봉사, 선교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포괄한다. 다섯째는 공생의 원리이다. 생명체는 주변환경과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 여섯째는 기능의 원리이다. 생명체의 구조는 기능을 위해 존재하며, 기능을 상실한 구조는 생명령을 약화시킨다. 교회 역시 제도와 조직이 목적화될 때 본래적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섯가지 교회의 생명체적 원리는 개별 요소들의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체계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 성장과 갱신을 전략적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회복이라는 신학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2. 순모임의 다섯가지 목표

창원새순교회의 순모임은(구역모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형성과 신앙 훈련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순모임의 다섯 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순모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의 역할을 한다. 단순한 모임의 차원을 넘어, 공통의 신앙 고백과 예배와 말씀 나눔, 음식교제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와 소속감을 강화한다. 둘째, 새신자를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순모임때 새가족이 참석하는 숫자는 많다. 순모임은 복음을 접한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습득하고 교회생활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는 교육적 공간으로 운영된다. 창원새순교회는 통(通)성경과 일대일 제자훈련 교제를 활용하여 새신자가 제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성도들이 책임과 돌봄을 실천한다. 순모임은 개인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황을 함께 살피고 기도와 도움을 통해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넷째, 성도들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개발한다. 특정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도들의 은사가 발휘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복음전파의 사명을 수행한다. 순모임은 내부 친교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로 기능하며, 관계 전도와 삶의 증언을 통해 실제적 선교 활동을 수행한다. 순모임에 이웃이 초청되어 오기도 한다. 종합하면, 창원새순교회의 순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 새신자 양육, 돌봄실천, 은사 개발, 선교적 확장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장으로, 이러한 목표가 균형있게 구현될 때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3. 창원새순교회 교육훈련 목표와 과정

창원새순교회에서 운영되는 통(通)성경학교의 교육 과정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도록 안내하면서 학습자의 영성과 공동체적 실천을 균형있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필자가 담당한 교육 과정은 조병호 박사의 통(通)성경학교 교재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였으며, 각 단계는 학습자 경험에서 출발하여 성경 이해와 삶의 적용으로 확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인 Pre-STEP 1 ‘그 순간’ 이야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 전환점을 성찰하도록 돕는 서론적 과정으로, 개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연결함으로써 성경이해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시작하도록 안내한다. Pre-STEP 2 성경과 영성 단계에서는 성경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영적 형성의 근원으로 인식하게 하여, 말씀 묵상과 영성 훈련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STEP 1은 ‘제사장 나라·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곱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중심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통전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STEP 2 ‘하나님 마음 알기’ 단계에서는 성경사건과 교훈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탐구하게 하여, 행위 중심적 윤리 이해를 넘어 신학적 통찰과 분별력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STEP 3 ‘성경즐기’ 단계에서는 성경의 역사적·구속사적 흐름을 하나의 줄기로 통합하여, 각 권과 사건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어지는 STEP 4 ‘성경을 통한 기도’ 단계는 말씀 이해를 기도로 확장하여, 성경 본문 속 인물들의 기도를 학습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합하는 영성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STEP 5 ‘패밀리 스쿨’은 이야기 전도 단계이다. 자신의 삶과 성경이야기를 결합하여 타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훈련하는 선교적 실천과정으로, 관계 속에서 삶의 증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통(通)성경학교의 단계적 교육 과정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성전 통전이해, 영성 형성,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 실천에 이르는 점진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설계는 성경 이해와 영적 성숙, 그리고 공동체적 사명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C. 창원새순교회 통(通)성경학교 현황

1. 강의내용

창원새순교회 통(通)성경학교는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성경의 통전적 이해와

영적 형성, 그리고 선교적 적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각 주차는 점진적 심화 구조를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도록 돕는 동시에 학습자의 영성과 실천을 균형있게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첫째 주는 “왜 5세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교육 과정의 신학적·교육학적 의의를 설명하고, 이어서 ‘그 순간’ 이야기와 성경과 영성에 관한 강의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신앙경험과 성경 이해를 연결하도록 돕는다. 둘째주는 ‘7Questions’ 를 중심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질문들을 다루며, 질문 중심 학습을 통해 통전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한다. 셋째 주는 “하나님의 마음” 1과부터 20과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함으로써, 성경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 의도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넷째주부터 여덟째 주까지는 “통(通)성경길라잡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다룬다. 넷째 주에는 1과부터 11과까지, 다섯째 주에는 12과부터 19과까지, 여섯째 주에는 20과부터 26과까지, 일곱째 주에는 27과부터 30과까지, 여덟째 주에는 31과부터 40과까지를 학습한다. 이 과정은 성경의 역사적·구속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맥락을 통합하는 영성 형성을 지향한다. 아홉째 주는 “성경기도 이야기” 1부터 3까지를 다루며, 성경 본문에 근거한 기도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합하는 영성 형성을 지향한다. 열째 주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5대제국과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5대 제국을 고찰함으로써, 성경과 세계사의 상관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성경 이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원새순교회 통(通)성경학교의 강의 구성은 개인의 신앙 경험에서 출발하여 성경의 통전적 구조 이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학적 통찰, 그리고 기도와 역사적 맥락 이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교육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참석 인원 현황

통(通)성경학교는 기수별 참여 인원은 제1기는 37명, 제2기는 74명, 제3기는 35명, 제4기는 9명, 제5기는 36명, 제6기는 43명, 제7기는 70명으로 집계 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수별 참여 인원은 변동이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2기와 제7기의 높은 참여율은 교육 과정에 대한 공동체 내 관심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참석의 독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일부 기수에서 참여 인원이 감소한 현상은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향후 교육 운영, 홍보 전략, 참여 동기 분석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창원새순교회 통(通)성경학교는 체계적 교육과정과 비교적 안정적인 참여 기반을 바탕으로 성경 통전 교육의 실제적 모델을 제공하며, 지역 교회 교육사역의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3. 목회현장에 통(通)성경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

2011년부터 창원새순교회 목회 현장에 통(通)성경을 도입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설교 시간에는 예화가 사라지고, 구절 설교에서 단락과 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설교의 적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적용은 성도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통(通)성경포물라, 통(通)성경길라잡이, 통(通)성경학교 등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통(通)성경을 배우게 되었으며, 성도들은 개별 본문이나 사건을 고립적으로 해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윤리와 교훈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도들의 기쁨과 자부심으로 이어졌고, 교회 출석자의 절반 이상이 통(通)성경을 배우며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성도들이 설교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설교 후 예화 중심으로 남던 기억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왔고, 새신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통(通)성경 과정은 성도들의 제자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실제로 성도들의 삶과 신앙 실천에 영향을 주었다. 만약 통(通)성경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여전히 개별 본문과 구절은 알고 있으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 결과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되기보다 암송된 구절의 집합으로 남아 본문 간 신학적 연결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通)성경 교육을 통해 성도들은 장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 암송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성경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일부 구절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가르침에 쉽게 노출되지만, 통(通)성경을 배운 성도들은 구절을 성경 전체 구조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D. 예수님 사역의 실제적 구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 → 교회의 사명 → 개인의 삶” 으로 확장되는 3단계 구조로 제시될 수 있다. 이 구조는 복음서의 신학적 의미와 오늘날 교회현장의 실천적 적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1. 용서의 사역-공동체내 화해와 관계회복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관계에 대해 ‘나와 너’ 사이에 작용되는 본질적 의미라고 정의한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계에는 세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는 자연과의 관계이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이 사람을 죽인다. 반면에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도 사람을 보호한다. 이처럼 자연과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또 다른 ‘나’ 와 공존하며 살아간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나를 존재하게 하는 진정한 ‘너’ 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협력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와 너’ 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영적존재와의 관계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두셨으니 인간은 알게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므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⁵⁷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⁵⁷ 최명일, 『관계 회복의 삶』 (서울: 멘토, 2014), 13-14.

때문인가? 우리의 원수가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운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용서와 사랑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정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다.⁵⁸ 악으로 악을 갚으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본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가지 악을 행하면 우리 마음은 갑절의 악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인간사회 어디선가 행해지고 있을 보복을 금하시며 모든 원수 갚는 일을 당신께 맡기라고 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사랑으로 정복해야 한다. 사랑으로 용서하며 안아주어야 한다.⁵⁹

2. 치유의 사역-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향한 섬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소외된 자들 즉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길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사회적 약자들을 다른 교인들과 구별하여 대우하기보다는 동등한 위상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⁶⁰

⁵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12:21, 개역개정).

⁵⁹ 최명일, 『관계 회복의 삶』, 19-20.

⁶⁰ 현유광, 『교회 문턱』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336.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오셨다. 종말에 임할 대대적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예언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관복음 저자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 사역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복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증이라고 볼 수 있다.⁶¹

목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함으로 회복된다. 예수님은 주려고 오셨고 섬기는 목회를 하셨다. 그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죄사함을 통해 천국을 주고, 풍성한 삶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였다. 섬김의 절정은 생명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한 영혼 귀중히 여기셨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을 찾아 목회하셨다.⁶²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인다. 분주한 거리에 서 있거나 교회나 스포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을 대충 훑어보면, 그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기쁨? 외로움? 열정? 스트레스? 대개 겉모습은 지하수처럼 인류사를 관통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흐르는 고통을 숨기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 숨겨진 고통의 강과 만나고 합류하여 놀라운 치유의 약속을 준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⁶¹ 박영돈,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104-105.

⁶² 박임상,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목회론 고찰』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4), 121.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 하기 위해 오셨다(사61:1). 또한 그는 우리를 상처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상처를 받는다. 죄를 지었고, 남의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악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치유하신다.⁶³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teaching), 선포하시며(preaching),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치유(healing)하셨다.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었다. 오늘날 기독교의 치유사역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며 기록된 것이 복음서이며, 지속적인 치유 사역을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⁶⁴

우리가 규정하는 봉사의 대상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의 디아코니아 대상은 예수가 모델로 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디아코니아 대상도 늘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문둥병자나 결핵 환자들이 많았을 때는 그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이 중요한 디아코니아 사역일 수 있겠지만, 요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치료받을

⁶³ 브래드 룡, 신디 스트릭클러, 『마음의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전현주 역 (서울: 세복, 2005), 11-12.

⁶⁴ 손윤탁,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23), 7-8.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꼭 병원을 세워 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계속해서 국가나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병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회의 치료 활동을 통한 디아코니아는 여전히 실제적인 사역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⁶⁵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사회적 약자들을 다른 교인들과 구별하여 대우하기 보다는 동등한 위상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환영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교인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를 잘하고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고 채워주어야 한다. 다음 주일에도 꼭 오도록 초청하고 주중에 심방을 통하여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들이 교회당 시설에 접근하기 편리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변이나 주차장에서 교회당 안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⁶⁶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의 영적 실체에 대한 자각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영적시각이다.

3. 제자훈련 사역-성령 안에서의 양육과 리더십

⁶⁵ 이병욱 외, 『선교적 교회의 오늘과 내일』, 188-189.

⁶⁶ 현유광, 『교회문턱』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337-338.

오늘날 제자 양육에서 목회 동역자 양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신도가 목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평신도가 목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뒤따른다. 목양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한다면 과연 교회에서 목회자가 필요할까? 폴 스티븐슨은 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다. 그로 인하여 목회자는 참으로 반문화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진정한 목회자가 되어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하며 그들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교회의 머리에 의조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사역을 바라보게 하면서 타인 속에 있는 은사들을 파악하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 수 있다.⁶⁷

제자훈련은 작은 예수 만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온전해지면 생활도 온전해진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려고 열심히 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다.⁶⁸

제자훈련의 목표는 회심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이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변화이다. 회개하는 것이 변화이다. 병든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변화이다. 그러나 변화가 제자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변화는 하나의 시작이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성숙이다. 성숙은 작은 예수가 되도록

⁶⁷ 폴 스티븐슨,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1999), 67.

⁶⁸ 옥한흠 외, 『리더십 쉬프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13-14.

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예수라는 이상적인 표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이다.⁶⁹

마태는 모든 신자가 직분의 구분을 넘어 오직 한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 이름을 예외없이 좁은 의미로 일관해 사용한다. ‘제자’라는 용어를 비교적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며, 주로 열두 제자를 지칭하는데 한다. 요한은 이러한 두 경향을 모두 포괄하여, 특히 제자들을 가리키는 협의적 의미와 더 넓은 신앙공동체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를 함께 사용한다. 그는 열두 명의 사도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요한복음6:66).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다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요한복음8:31). 제자라는 용어를 광의적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한 인물로는 누가가 주목된다. 그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주저 없이 ‘제자’라 칭함으로써,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포괄적으로 묘사하였다.⁷⁰

현대 지역교회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형성 방식 가운데 역동성과 현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회의 제자훈련은 단지 건물중심의 정적 교육프로그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동하며 관계 속에서 제자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실천적 모델을 재검토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⁷¹

예수님은 섬김으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의 대가이시다. 예수님께서서

⁶⁹ Ibid., 20.

⁷⁰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9), 120.

⁷¹ 김성국, 『제자도와 목회 사역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40.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이다.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순간 리더십이 발휘된다.⁷²

4. 리더십 사역-종과 제자양육

a. 부형 리더십-삭막함과 엄숙함

부형 리더십을 강하게 가진 지도자는 교정이 필요하다. 단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함께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개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차가운 사람이 금방 따뜻해 지지는 않는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거울 앞에서 밝게 웃는 연습도 하고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말을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의 약점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없으면 동일한 문제들이 되풀이된다. 부형 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의 경우 자신이 지닌 엄숙함이 제자훈련에 좋은 약인 줄로 착각하고, 엄하게 몰아내고 긴장을 주고 꾸중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정도(正道)라고 오해할 수 있다.

b. 모형 리더십-부드러움과 유순함

⁷² 켈 블랜차드, 필 하지스, 『섬기는 리더 예수』, 14.

오늘날 현대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리더십은 모형 리더십이다. 현대인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고독하다. 자신감을 잃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교재 내용만을 소화해내다가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한다. 학습을 통해 익히는 것은 학습하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만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유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지도자의 마음에서 전달되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이다.

c. 부모형 리더십-사랑과 두려움

부모형 리더십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은 리더십이다. 어머니의 유수함과 아버지의 경계함이, 다시 말해 사랑과 위로, 격려, 경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훈련생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긴장을 갖게 한다. 또한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갖도록 한다. 이렇게 부모형 리더십을 가지고 훈련하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반에는 불평이 거의 없다.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⁷³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리더가 될 제자들을 향해 진정한 위대함은 종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⁷⁴ 그러므로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⁷³ 옥한흠 외, 『리더십 쉬프트』, 25-28.

⁷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5-28, 개역개정판.

리더십이고 그리스도인 리더는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초대 교회 리더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21세기 현대를 사는 리더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질문에 2가지도 대답을 하면 첫째는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십, 즉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섬김에 대해 가르친 마태복음 20:25-28절과 요한복음 13:1-1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 어떤 개념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예수님은 이방의 리더와 섬기는 리더를 비교하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제시한다.⁷⁵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리더상은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리더를 정의할 때도 동일한 리더상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기독교 리더란 진실한 마음가짐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리더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종이라고 불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⁷⁶, 요셉⁷⁷, 모세⁷⁸, 여호수아⁷⁹, 느헤미야⁸⁰, 다윗⁸¹, 다니엘⁸²,

⁷⁵ 오브리 펠퍼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정임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45.

⁷⁶ 창세기 26:24.

⁷⁷ 창세기 39:17-19, 41:12.

⁷⁸ 출애굽기 4:10; 신명기34:5.

⁷⁹ 여호수아 24:29.

⁸⁰ 느헤미야 1:6, 2:5.

⁸¹ 사무엘상 17:32; 사무엘하 7:5.

⁸² 다니엘 1:12.

예수님⁸³, 바울⁸⁴, 베드로⁸⁵이다. 종된 리더에게는 최소한 4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겸손, 섬김, 이타심, 사랑이다. 3가지는 마태복음 20장에, 나머지는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 잘 드러나 있다.⁸⁶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4가지 사항이 있다. 즉 리더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고, 소극적이어야 하며, 인간적 약점에 민감해야 하고, 리더 개인의 사정은 뒷전으로 미루어야 한다는 생각이다.⁸⁷

제자양육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산하는(성숙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성숙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세상과 자신의 구주와 주(The Savior and Lord)로 믿고 고백한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 둘째, 그는 말씀, 기도, 교회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그를 닮아간다. 그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셋째, 그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한다. 넷째, 그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⁸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영적 민감성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통찰력,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⁸⁹

⁸³ 이사야 42:1; 마태복음 20:28; 빌립보서 2:7.

⁸⁴ 로마서 1:1; 고린도전서 9:19; 갈라디아서 1:10; 빌립보서 1:1.

⁸⁵ 베드로후서 1:1.

⁸⁶ 맬피스, 『리더가 된다는 것은』, 46-48.

⁸⁷ Ibid., 62.

⁸⁸ 현유광, 『교회문턱』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235.

⁸⁹ 김도인 외, 『목회트렌트 2025』 (서울: 글과 길, 2024), 141.

VI. 현대 교회 속에서 실현되는 예수님의 사역

A. 교회 공동체의 섬김 실천

성경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과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신앙적 책임과 사명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특히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내부적 친교와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하며 외부 사회로 확장된 섬김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사회적 평가와 도덕적 신뢰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현대의 개인주의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제한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 윤리적 영향력과 도덕적 수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⁹⁰

따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섬김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은 가장 깊은 감동과 강력한 도전을 제공한다. 구성원들은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진정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리더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기억한다. 섬김을 통한 신뢰와 관계 형성은 조직이나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명자는 개인이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를 깨닫도록 안내하며,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사명자는 공동체 구성원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며, 교회와 사회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섬김의 네트워크가 확립되도록

⁹⁰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8), 254-255.

이끌어야 한다.⁹¹

B. 사회 정의와 복음의 통합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회적 현실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 본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사회가 보다 평화롭고 공의로운 구조를 갖추어갈수록,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행동은 단순한 공익적 행위를 넘어, 사랑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정의로우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받는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가 깨끗해지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면, 사회를 정의롭게 개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⁹²

C.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 구원으로서의 확장

⁹¹ 장성배,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115.

⁹² 손봉호,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 (서울: CUP, 2023), 300-301.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 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폐기처분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되어 나타나야하는 것이다.⁹³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 구원에서 출발하여 공동체 구원으로 확장되는 역동적인 구조를 지닌다. 개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은 바로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기독교 구원론은 개인적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세리 마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인물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신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내면적 경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가 중심되고 용서와 나눔이 삶의 원리가 된다.

D.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방식

예수님의 사역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복음선포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둘째, 교회의 돌봄과 봉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형태이다. 사회적 약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셋째, 제자의 삶과 윤리적 실천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신자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다.

⁹³ 조성돈, 『목회사회학-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2004), 14.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고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선포했다. 공관복음서 전승을 면밀히 분석할 경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며 그의 선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⁹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는 중심적 주제로 등장한다. 공관복음서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을 싣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마태복음 4:17; 마가복음 1:15; 누가복음 4:13).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사역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수훈과 여러 비유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르침 전반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과 긴밀히 연결되며, 이를 통해 신학적·실천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⁹⁵

⁹⁴ 제임스 D. G. 던, 『예수, 바울, 복음』 이상목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61.

⁹⁵ 게할더스 보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원광연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9), 9.

VII. 결론

A. 연구요약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회는 통(通)성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5살 어린아이부터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성경을 가르쳐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서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과 영성을 본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본 논문은 통(通)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해에 기여한 정경적, 구속사적,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통(通)성경적 접근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 전체의 중심사건으로 재정립하고, 사복음서의 신학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구속사 전체 속에서 심화시킨다. 통(通)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다 총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신학적 틀이며, 현대 교회의 신앙교육이 직면한 분절적 성경 이해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1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통(通)성경을 사역에 적용한 창원새순교회 사역을 살펴보고, 현대 교회 속에서 실현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通)성경의 개념과 의의, 성경통독의 역사와 발전, 통신학의 형성과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둘째, 사복음서의

개관과 신학적 구조를 살피고, 사복음서의 영성과 신학을 연구했다. 셋째,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기를 포함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구속사적 위치를 조명하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살펴보았다. 넷째, 통(通)성경을 사역에 적용한 창원새순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창원새순교회의 개척부터 교회의 역사와 비전, 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순모임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2011년부터 시작된 통(通)성경을 통한 교육훈련목표와 과정을 연구했다. 다섯째, 현대 교회 속에서 실현되는 예수님 사역을 살펴보았다.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실천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는 방식을 다루었다. 결론부분에서 연구를 요약하고, 예수님 사역의 신학적 통합과 실천적 제언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부록에서는 실제로 통(通)성경학교 하면서 사용했던 문서와 사진을 첨부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대부분은 3대 사역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사역들을 논문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통(通)성경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보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通)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회현장에서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먼저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

B. 신학적 기여 (통성경과 사복음서)

통(通)성경으로 사복음서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 사역의 신학적 통합을 이루었다. 통(通)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절 중심, 주제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가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 전체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 신앙을 단편적 지식이 아닌 구속사적 세계관으로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이고 목회적 기여도가 높게 평가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선포로서의 예수님 사역의 통합성을 지닌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이라는 중심 주제로 제시한다. 표현방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현재화되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통합적 구속 사건으로 증거한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해석적으로 결합된 계시적 사역이라는 점에서 신학적 통합성을 지닌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말과 사건을 통해 총체적으로 전달되는 통합적 사역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복음서 전체가 공유하는 신학적 관점이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하는 구속사적 통합성을 지닌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구원사건으로 제시한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확증하고 완성하는 사건으로, 말씀과 행위, 죽음의 의미를 통합하며, 교회와 세상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토대를 형성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신학적 통합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현재화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단일한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데 있다.

C. 목회와 교육적 기여

하나님 나라와 의(義)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사람의 도덕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상적으로 성취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의 계시이며,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니시는 특권이다. 둘째, 사람에게 필요한 의가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서 베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이생에서 의를 실천하는데 대한 상급으로 주어진다.⁹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구원의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파송은 교회의 존재 근거이며, 신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섬김과 사랑, 용서와 화해를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실천적 신학이라 할 수 있다.

D. 한계와 후속 연구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환영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通)성경으로 배우는 큰 그림도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복음서를

⁹⁶ Ibid., 58.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통(通)성경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반면 세부적이고 상세한 성경 관찰과 연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그리고 본연구는 사복음서의 목회부분의 이론과 실천적인 연구이므로 신학적인 원어와 고고학적이고 지리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량상 기도부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통(通)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으나, 상세하게는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이 논문은 다루었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원어와 함께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성경

- 강병도, 전봉준 편집. 『톰슨Ⅲ 성경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2016.
- 민영진. 『대조성경: 개역개정·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15.

2. 국내서적

- 김정복. 『성경적 기도와 큐티』. 서울: 보이스사, 2008.
- 김형주. 『마가가 만난 예수』. 서울: 솔로몬, 2011.
- 노상균. 『통독을 위한 성경 다이제스트』. 서울: 올리브박스, 2014.
- 박영돈.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1.
- 박영호. 『창원새순교회 20년사』. 창원: 인기확인쇄, 20005.
- 서병안. 『말씀의 숲을 걷다(신약편)』. 서울: 조이플 북스, 2020.
- 손봉호.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 서울: CUP, 2023.
- 손윤탁.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23.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마태복음 I』. 서울: 이엠, 2021.
- 신현우.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 나라』. 부산: 등과 빛, 2018.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9.
- 옥한흠 외. 『리더십 쉬프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유진소. 『즐거운 성경 66권 탐구』. 서울: 두란노서원, 2010.
- 이병옥 외. 『선교적 교회의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8.
- 임경근. 『세계 교회사 걷기』. 서울: 두란노, 2021.
- 장성배.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장정일. 『신약탐험』. 서울: 킹덤박스, 2012.
-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6.
- .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 .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2.
- .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 『통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 『통통성경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3.
- . 『성경통독 레시피』. 서울: 통독원, 2025.
- 조성돈. 『목회사회학_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2004.
- 최명일. 『관계 회복의 삶』. 서울: 멘토, 2014.
- 현유광. 『교회문턱』.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3. 번역서

- 보스, 게할더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원광연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
- 카니, 글랜디온, 룡, 윌리엄. 『예수영성』.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9.
- 벽, 데릴.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신지철,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17.

베일리, 마크 L., 컨스터블, 탐 L. 『신약탐험』. 정인홍 역. 서울: 디모데, 2015.

룽, 브래드, 스트릭클러, 신디. 『마음의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전현주 역. 서울: 세복, 2005.

바턴, 스티븐 C. 『사복음서의 영성』. 김재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맬퍼스, 오브리.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정임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페닝톤, 조나단 T. 『복음서 읽기: 내러티브와 신학적 개론』. 류호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던, 제임스 D. G. 『예수, 바울, 복음』. 이상목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카스, D. A. 외. 『신약개론』.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3.

Reeves, Michael.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장호준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6.

4. 학위논문

김성국. 『제자도와 목회 사역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박임상.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목회론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4.

옥이돌. 『요한복음에서의 영성과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부록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⁹⁷

내 용	예 언	성 취
하나님의 아들 되심	삼하7:14, 시2:7	행13:33, 히1:5, 5:5
성육신	사7:14, 9:6	요1:14, 히105:9
다윗혈통 계승	삼하7:12~16, 사9:6~7	마1:1, 막12:36, 눅20:42~43, 요7:42
동정녀 수태	사7:14	마1:18~20
베들레헴 탄생	미5:2	마2:6, 요7:42
애굽으로 피신	호11:1	마2:14~15
유아학살	렘31:15	마2:17~18
나사렛 귀환	삿13:5,7, 사11:1	마2:23
가버나움 사역	사9:1~2	마4:13, 16
선지자적 사역	신18:15	행3:22, 23:7, 37
금혼의 사역	사42:1~4	마12:17~21, 눅4:18~21
치료 사역	사53:5	마8:17
예수의 제사장 직분	시110:4	히5:6~7, 7:17, 20
예수의 비유 사용	시78:2	마13:35
창중의 완악함	사6:9	마13:14~15, 막4:12, 눅8:10,

⁹⁷ 강병도, 전봉준 편집, 『톰슨Ⅲ 성경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2016), 2006.

		요12:37~41
나귀새끼를 타심	슌9:9	마21:5, 요12:14~15
유대인들의 배척	시118:22~23	마21:42, 눅20:17, 행4:11
유대인들의 증오	시35:19	요15:25
그리스도의 수난	시22:6	마26:2, 막9:12, 눅18:32
제자들의 비겁함	슌13:7	마26:31, 막14:27
유다의 배반	시41:9	요13:18
불잡히심	애4:20	마26:55~56, 막14:49
불법자의 동류로취급	사53:112	눅22:37
이방인 앞에서의 심문	시9:19	눅23:1~25
해치려는 음모	시2:1~2	행4:25~28
겉옷을 위한 제비뽑기	시22:18	요19:24
십자가 상의 갈증	시22:15	요19:28
창에 찢린 옆구리	슌12:10	요19:34
죽으심	신21:23, 사53:9	눅23:46, 행8:32~33, 갈3:13
부활	시16:10, 49:15	눅18:33, 요2:22, 행2:25~28, 고전15:4
승천	시68:18	행2:34~35, 엡4:8
존귀	시110:1	마22:44, 막12:36, 눅20:42~43, 히1:13

부록 2. 예수님 치유 사역의 대표적인 실례들⁹⁸

사건의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요4:46~54
베데스다 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심				요5:1~9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마8:14~15	막1:29~31	눅4:38~39	
중풍병자를 고치심	마9:2~8	막2:3~12	눅5:18~26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	마12:9~13	막3:1~5	눅6:6~10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마8:5~13		눅7:1~10	
눈멀고 병어리 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마12:22		눅11:14	
가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마8:28~34	막5:1~20	눅8:26~39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심	20~22	막5:25~34	눅8:43~48	
두 맹인을 고치심	27~31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심	32~33			
가나안 여자의 귀신들린 딸을	마15:21~2	막7:24~30		

⁹⁸ 강병도, 전봉준편집, 『롬슨Ⅲ 성경주석』, 2029.

고치심	8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심		막7:31~37		
베테스다의 맹인을 고치심		막8:22~26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	마17:14~18	막9:14~29	눅9:38~42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심				
안식일에 귀신들린 여자를 고치심			눅13:10~17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심			눅14:1~6	
나병환자 열 명을 고치심			눅17:11~19	
맹인 바디매오를 고치심	마20:29~34	막10:46~52	눅18:35~43	

부록 3. 청년대학부 계획안(2021)⁹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16

☎ 288-7884 FAX 277-7884



2021년

청년대학부 계획안

www.saesun.or.kr

담당교역자: 이규섭 목사

1. 주제(표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대학부

2. 주제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5)

3. 주제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4. 조직(2021):

▮담당교역자:

▮국장:

▮팀장: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찬양팀리더:

순 장:

5. 청년대학부 사역의 사명, 사역 목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창원세순교회 청년대학부의 사명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다(마22:37~40).

6. 청년사역의 6가지 핵심가치

- 1) Relationship,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 말씀, 기도, 예배(주일예배, 새벽기도회).
- 2) Integrity, 정직하고 거룩한 삶 -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
- 3) Sharing, 나누는 삶 - 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
- 4) Neighbor, 전도와 선교 - 3.3 기도 (3명 친구 위해 3번 기도하는 운동).
- 5) Purpose, 비전과 사명 - 비전스쿨, 수련회.

⁹⁹ 필자가 청년대학부 4년 사역을 하면서 통통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쳤을 때의 계획안이다.

6) Gift, 은사와 달란트: 재능으로 섬기는 삶 - 교회봉사, 지역봉사.

7. 사역 비전

- 1)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다(예배회복).
- 2) 말씀의 연구와 배움을 통한 성숙과 온전함을 추구한다.
- 3) 교회내 팀별 활동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간다.
- 4) 자신의 삶의 영영속에서 사역적 활동을 통한 실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다.
- 5)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과 문화의 개척자로서의 사역한다.
- 6) 민족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구체적으로 행한다.

8. 사역:

- ▮성경읽기(일년일독)와 큐티훈련을 통한 영적인 성장
- ▮제자훈련 & 큐티훈련(마음과 생각), 교리교육강화
- ▮주일사역: 예배와 소그룹 모임(나눔과 교제) 활성화
- ▮주중사역: 심방을 통한 돌봄 사역
- ▮단기선교
- ▮캠퍼스와 직장에서 복음 전파하기(아웃리치)
- ▮금요기도회(두달 한번, 교회탐방)
- ▮상담과 참여를 통한 기질 파악하기
- ▮통(通)성경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성경공부

부록 4.¹⁰⁰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7기 입학식 시나리오와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시나리오 / 시간은 오후 6:00~9: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 사회: 센터지기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6:00 ~ 6:01	입학식 시작 선언	센터지기	• “지금까지 통성경학교 1기 () 센터 입학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환영인사 및 기도해주시겠습니까.”
6:01 ~ 6:04	환영인사	센터장	• “통성경학교 1기 () 센터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 센터장의 대표기도
6:04 ~ 6:09	입학생 서약서 낭독	학생대표 2인 - 반장, 부반장	• 반장과 부반장이 대표로 나와서 서약서 내용 6가지를 차례대로 낭독한다. • 마지막 부부인 ‘본인은 Family School을 위한 ~~~’ 부터는 모든 입학생이 다함께 한다.
6:09 ~ 6:11	통통성경 노래	다같이	• 메인교재 맨 앞장에 있는 악보를 보며 함께 부른다. (ppt에 악보를 띄운다) •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른다.
6:11 ~ 6:15	오리엔테이션	센터지기	•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아래 참조.

1. 환영

통통성경학교 1기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강의 & 강사

통성경학교는 오늘부터 10주간, 매주 3강의(3시간)씩

총 30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통통성경학교를 위한 전문강사로 최고의 강의를 될 것입니다.

¹⁰⁰ 통성경학교 10주 과정을 교회에서 실시하면서 통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던 양식들이다.

3. 이름표

접수 시 받으신 이름표를 꼭 착용해주시고, 매주 강의가 끝나면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출석 & 과제

매주 출석 및 과제 체크를 꼭 하시기바랍니다. 10주간 수업 가운데 3주 이상 결석하시면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매주 10분 이상 늦으면 지각, 지각 3번이면 1번 결석이 됩니다. 매주 과제는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3회 이상 제출 안하실 경우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강의 시작 전,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 녹음 및 녹화는 금합니다. 강의와 교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6. 기도

통통성경학교 기간 동안 강의를 맡은 강사들과 센터를 섬기는 센터장, 센터지기, 스태프,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통성경학교를 잘 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열심있는 마음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부록 7.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7기 센터별 수업진행 보고서

제출일: 년 월 일

센터명		센터 장		센터지 기	
주차	날 짜		시간		장소
강의 진행 현황					
강의구 분	강사	강의 제목		시작시간	종료시간
1강					
2강					
3강					
학생현황					
재적	명	출석	명	결석	명
NO	결석자 이름	결석 사유		비고	
1					
2					

3			
4			
5			
특이사항			
NO	세부 내용		
1			
2			
3			
4			
5			

부록 8.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7기 진행 시나리오

진행 1주일 - 하루 전

구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 준비물
장소	70명 수용 공간	센터장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 의자, 음향(마이크, 가스펠음악, 통통성노래 음원) 영상(촬영카메라), 빔프로젝트(스크린), 화이트보드 냉/난방기, 현수막(본부지원), 장소 안내 표지판
등록 & 접수	등록자 명부 준비 접수 공간 & 테이블	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자 명부 & 등록비 입금표 최종 등록자 지원서 마무리 정리 최종명단 본부 발송, 본부지원비 본부 송금 출석부(과제 확인표), 접수용 테이블 2~3개
교재	10권 준비 확인	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인교재, Step별 7권, 일년일독 통통독성경 통통성경길라잡이
물품	진행물품 확인	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방, 이름표 케이스 이름표 속지(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부반장, 학생) 센터장과 센터지기 이름표는 본부에서 보내줌 반장, 부반장, 학생은 본부에서 제공한 용지에 각 센터에서 출력함 강사 이름표는 본부에서 강사에게 직접 보내줌
강사	강사 확인 & 의전 준비	센터장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센터별 배정표, 강사연락처 강사 확인 연락(시간&장소 공지) 강사휴게실(강사간식, 냉/난방기), 강사 동선 확인 강사용 물컵 & 물수건
간식	간식 매뉴얼 & 간식 준비	센터장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매뉴얼 짜기, 간식 테이블, 간식 준비 (센터별 상황에 맞게 진행)
자료	진행 자료 확인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 시나리오, 입학식.수료식 시나리오 & ppt 자료 오리엔테이션 ppt 자료, 수업진행보고서 양식 재정보고서 양식, 30강 ppt 자료, 기수별 연락망 양식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양식

※ 진행시나리오는 통통성경학교 7기 진행과정에서 센터장, 센터지기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10주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폐기해주시길 바랍니다.

1주차 강의 진행 / 시간은 오후 6:00~9: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 준비물
4:30 /90분전	장소 준비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 의자, 음향(마이크, 가스펠음악, 통통성경노래 음원) 영상(촬영카메라), 빔프로젝트(스크린), 화이트보드 냉/난방기 준비, 현수막설치, 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
	접수대 세팅 시작 교재 & 물품 준비	(반장)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용 테이블 2~3개 메인교재, Step별 7권 교재, 일년일독 통통독성경, 통통성경길라잡이 준비 가방, 이름표,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5:00 /60분전	접수 시작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장을 중심으로 한 접수팀이 접수업무 진행 명단 확인, 이름표, 교재, 물품 배부 자리 안내 출석 확인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체크함
	강사 확인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연락 & 도착 시간 확인(센터지기) 강사의전 관련 준비(부반장)
	간식대 & 간식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대 세팅 & 간식 준비
5:30 /30분전	강의실 가스펠 음악	센터지기 (음향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실 가스펠 음악 켜기
	간식 세팅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세팅
5:50 /10분전	강의실 착석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강의실 입장
6:00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식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 오리엔테이션 진행
6:15	1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분간 강의 진행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ppt 자료 띄우기 강의실 냉/난방 조절
7:00	휴식 시간 1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1기 센터별 연락망 작성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리필 • 강의실 환기
7:10	2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8:00	휴식 시간 2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 1기 센터별 연락망 작성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리필 • 강의실 환기
8:10	3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9:00	1주 수업 마무리	센터장	• 다음 주 과제 & 공지사항 전달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배웅(강사로 전달) • 1주 수업진행보고서 작성 & 본부로 이메일 보고
		반장.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정리 • 강의실 정리, 안내데스크 정리, 이름표 수거, 현수막 철거

2주-8주차 강의 진행 / 시간은 오후 6:00~9: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 준비물
5:00 /60분전	장소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 의자, 음향(마이크, 가스펠음악, 통통성노래 음원) 영상(촬영카메라), 빔프로젝트(스크린), 화이트보드 냉/난방기 준비, 현수막 설치
	출석 안내 데스크 준비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데스크 준비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준비 출석 확인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체크함 지난 주 결석 학생 연락
	강사 확인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전날에 1차로 강사 연락(센터지기) 2차로 강사 연락 & 도착 시간 확인(센터지기) 강사의전 관련 준비(부반장)
	간식대 & 간식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대 세팅 & 간식 준비
5:30 /30분전	강의실 가스펠 음악	센터지기 (음향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실 가스펠 음악 켜기
	간식 세팅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세팅
5:50 /10분전	강의실 착석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강의실 입장
6:00	1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분간 강의 진행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ppt 자료 띄우기 강의실 냉/난방 조절
6:50	휴식 시간 1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리필 강의실 환기
7:00	2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분간 강의 진행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ppt 자료 띄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실 냉/난방 조절
7:50	휴식 시간 2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자율 과제물 체크 확인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리필 강의실 환기
8:00	3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분간 강의 진행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ppt 자료 띄우기 강의실 냉/난방 조절
8:50	수업 마무리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주 과제 & 공지사항 전달 2주차 수업 이후 학생 지원서 본부로 발송 8주차 수업 이후 9주차 수업 이전 수령 물품 (수료자 서약서, 거자씨후원 약정서, 수료자 후기 양식, 2기 추천자 양식, 센터 섬김이 지원서 양식)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배웅(강사료 전달) 수업진행보고서(매주) 작성 & 본부로 이메일 보고
		반장,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정리 강의실 정리, 안내데스크 정리, 이름표 수거, 현수막 철거

* 2주~8주 사이에 통독원 1회 방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조절하여 공지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 진행 / 시간은 오후 6:00~9: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 준비물
5:00 /60분전		장소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 의자, 음향(마이크, 가스펠음악, 통통성노래 음원) 영상(촬영카메라), 빔프로젝트(스크린), 화이트보드 냉/난방기 준비, 현수막 설치
		출석 안내 데스크 준비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데스크 준비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준비 출석 확인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체크함 지난 주 결석 학생 연락
		강사 확인	센터지 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전날에 1차로 강사 연락(센터지기) 2차로 강사 연락 & 도착 시간 확인(센터지기) 강사의전 관련 준비(부반장)
		간식대 & 간식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대 세팅 & 간식 준비
5:30 /30분전		강의실 가스펠 음악	센터지 기 (음향담 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실 가스펠 음악 켜기
		간식 세팅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세팅
5:50 /10분전		강의실 착석	센터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강의실 입장
6:00		1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분간 강의 진행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ppt 자료 띄우기 강의실 냉/난방 조절
6:50		휴식 시간 1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리필 강의실 환기 	

7:00		2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7:50		휴식 시간 2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 자율 과제물 체크 확인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리필 • 강의실 환기
8:00		3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8:50		9주차 공지사항	센터장 센터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사진 촬영 & 다음 주 과제 공지 • 수료자 서약서, 겨자씨후원 약정서 작성 • 수료자 후기 양식, 2기 추천자 양식, 센터 섬김이 지원서 양식 교부
9:00		9주차 마무리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주차 수업 이후 수료자 명단 본부 제출 & 수료물품 요청 • 10주차 전에 수료물품 & 단체사진 수령
			센터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배웅(강사료 전달) • 수업진행보고서(매주) 작성 & 본부로 이메일 보고
			반장,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정리 • 강의실 정리, 안내데스크 정리, 이름표 수거, 현수막 철거

10주차 강의 진행 / 시간은 오후 6:00~9: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 준비물
5:00 /60분전	장소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의자, 음향(마이크, 가스펠음악, 통통성노래 음원) • 영상(촬영카메라), 빔프로젝트(스크린), 화이트보드 • 냉/난방기 준비, 현수막 설치
	출석 안내 데스크 준비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데스크 준비 •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준비 • 출석 확인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체크함 • 지난 주 결석 학생 연락
	강사 확인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전날에 1차로 강사 연락(센터지기) • 2차로 강사 연락 & 도착 시간 확인(센터지기) • 강사의전 관련 준비(부반장)
	간식대 & 간식 준비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대 세팅 & 간식 준비
5:30 /30분전	강의실 가스펠 음악	센터지기 (음향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가스펠 음악 켜기
	간식 세팅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세팅
5:50 /10분전	강의실 착석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강의실 입장
6:00	1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6:50	휴식 시간 1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리필 • 강의실 환기
7:00	2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7:50	휴식 시간 2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체크 확인 • 자율 과제물 체크 확인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리필 • 강의실 환기
8:00	3강 진행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분간 강의 진행 • 강사용 마이크 음량 조절 • 강의 내용 영상 촬영 진행 • ppt 자료 띄우기 • 강의실 냉/난방 조절
8:45	수료식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식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 • 수료증 수여 & 단체사진 전달 • 수료자 후기, 센터 섬김이 지원서 제출받기
9:00	전체 마무리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배웅(강사로 전달) • 센터 재정보고서 작성 & 본부 제출(센터장) • 센터 운영 최종 보고서 작성 & 본부 제출(센터장) • 10주차 수업진행보고서 작성 & 본부 이메일 보고(센터지기) • 본부로 발송할 품목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수료자 서약서, 겨자씨후원 약정서, 수료자 후기, 2기 추천자, 센터 섬김이 지원서)
		반장,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 과제 &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정리 • 강의실 정리, 안내데스크 정리, 이름표 수거, 현수막 철거

부록 9. 통성경학교 2기 단체 사진



부록 10. 초등2부 겨울성경캠프 단체사진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Gyuseob Lee

Place and Date of Birth: Haman, South Korea, Sep30, 1972

Parent's Names: Chunggil Lee and Myungjeom Noh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Haman High School 630, Haman daero, Hamangun,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7, 1991
Collegiate: Kosin Theological University 194, Wachiro, Yeogdogu, Busan, Republic of Korea	B.A.	Feb 16, 2006
Graduate: Kosin Theological University 535-31, Chungjeolro, Dongnamgu, Cheonam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M. Div	Feb 17, 2009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Gyuseob Lee

Name typed

May 16, 2026

date